



▲ 22일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대응 2단계(6~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 충남 서천군 제공>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 전소 ...상인들 '망연자실'

윤 대통령 화재 현장 찾아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 즉시 검토"... 행안부·충남도 "재해복구 등 총력"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대책마련 촉구"

다음달 설날 대목을 앞두고 충남 서천의 명물인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의 점포가 소실돼 상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관련기사 2·13면>

충남소방본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경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 인력 361명과 장비 45대를 투입한 소방 당국은 2시간여 만인 23일 오전 1시 15분경 큰 불길질을 잡았다. 오전 3시부터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현재 진화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점포 227개가 모두 불에 탔다.

시장 내 수산물동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농산물동 쪽으로 번진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불로 서천군은 22일 오후 11시 59분경 '현재 시장 주변 유독가스가 누출돼 위험하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충남도는 화재를 수습한 후 재해 복구 및 상인 일상 회복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하기로 했다.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23일 아침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현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긴급 지원 대책을 밝혔다.

김 지사는 상인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 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즉시 상가 당 200만 원 씩 긴급 재해구호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이에 더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활용, 피해 상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상인들이 빠른 시일 내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 지사는 "상인 여러분들이 설 명절 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서천군의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 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촉 행사 등을 개최 지원하고, 소비자 단체 협조를 받았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한편, 김태홍 충남도지사는 이날 화재 복구 대응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서천특화시장 임시 개설과 신속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복구 대응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서면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17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시장 재건축 전까지 임시 상설시장을 개설해 상인들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시 상설시장은 현 시장 인근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도는 4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중 김 지사가 윤 대통령 등에게 요청한 특별교부세는 20억 원이다.

김 지사는 또 시장 정상화와 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장 신속이 필요하다며 특별교부세 150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화재로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라며 "긴급 재해구호비 지원 등 긴급 대책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겠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여러분들이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

게 지원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천특화시장 화재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행안부는 중기부·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수습 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한 특교세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행안부·중기부·충남도·서천군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피해 상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 지원에 모든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화재 발생 장소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한파가 계속되는 만큼 전국의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소방·경찰 등은 관계기관이 협조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화재 원인 조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추진을 통해 인체 보호 기준 마련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발전소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이며,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역시 전국의 10%가 충남에 위치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1.3%에 불과하여 전력수급에 따른 지역별 불균형과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전력 생산지 주민들은 미세 먼

지, 전자파 등 인체 유해 여부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확보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다.

때문에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그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 추진을 통해 인체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안정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라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청년마음건강연구소 C.LAB 씨랩

내 마음도 미리 검진하세요 [성향검사 / 팀빌딩 / 강연 / 온라인상담]

instagram 인스타 @c.lab_____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씨랩마음단지

1. 개인
온라인성향검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1대1상담
진로상담, 성격상담, 심리상담

2. 팀
팀빌딩 (MBTI / 버크만)

3. 강연/강의 (학교/복지센터/센터/중소기업/기타단체)
진로 / 스트레스 / 마음건강기획_테마에 따른 / 성향, 성격 등



문의)
네이버톡톡 / 인스타 DM
메일 - clabclab_10@naver.com
문자: 전화 070.8098.1834



여야, 서천특화시장 화재 수습 '한 뜻'

국힘 "서천시장 화재, 긴급자금 지원·임시시장 설치 추진" 민주당 "사고 수습 총력 다해야"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군 서천 특화시장 화재에 대해 여야가 조속한 사고 수습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긴급자금지원, 임시시장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업종상속 속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상인분들과 서천 주민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방당국의 빠른 화재 진압으로 현재 불길이크어 무너진 상행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등 신속한 수습과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7개 점포가 전소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설 상수품 재구매 비용 마련을 위한 금리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 부처, 충남도와 상

의해 서천특화시장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시장을 설치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상인분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돕는 긴급자금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당국은 비슷한 화재를 막을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우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당국은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상인들께서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충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8분께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집포 227개가 전소됐다.

불은 인명 피해 없이 9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이정복기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메타버스법, 초월적 법보다 현실성 있어야"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1)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KOVACA는 XR 산업이 2021년 189억6000만달러에서 2026년 1007억7000만달러로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지

만, 국내 XR 산업 80%가 콘텐츠 기업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우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융합산업법은 법률이 적용되는 산업 분야가 모호하며, 다양한 분야와 장르에 중복해 규제될 우려를 제기했다.

가상융합산업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저작권법 제외한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으면서, 임시기준[2]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해석되며, 특정 이

의 집단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예를 들어 NFT 등을 활용한 환금성 성격의 지니는 서비스를 임시기준으로 허용될 경우, '제2의 바디야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KOVACA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로 연계되는 디지털 산업과 국내 XR 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콘텐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류돼 있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김성구기자

금산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회... 오는 30일까지

제3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23일 개회했다. 금산군의회는 집행부의 2024년도 업무계획을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청취하고 금산군이 제시한 2024년도 나·아·갯 방향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21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및 금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 등이 포함됐다.

임시회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명수 의원은 인구감소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면서 집행부에 '인구감소 대책 TF팀' 구성을 제안했으며 각 상인 위에서는 조래안 등을 심의했다. 김기운 의장은 "제9대 금산군의회가 개원 후 500여 일이 지났다. 금산군의회도 시간이 지난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024년 집행부의 업무계획을 면밀하게 살펴 군민을 위한 해와 곡교천이 만나는 성장면 신문리를 거쳐 곡교천을 따라 퍼크골프장까지 약 30키로미터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대표 공약인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 현장을 답사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식당가 등 민생현장을 누비며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산=이정복기자

대전 동구의회, 오는 29일

올해 첫 임시회 개회

대전 동구의회(의장 박영순)는 23일 운영위원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제277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며,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영순 의장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는 올해 첫 의사일정인 만큼 그 의미와 중요도가 남다르다"면서, "모든 의원께서는 구정 주요 업무에 대해 꼼꼼히 점검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29일 제1차 본회의 ▲30일 상임위원회 ▲31일~2월5일 제2차~제5차 본회의(업무보고) ▲6일 제6차 본회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영상은 동구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정환기자

김영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국민의힘 아산군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석(전)해양수산부 장관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오는 1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산시 온천대로 1541 명지빌딩 2층 202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는 오후 3시에 간담회로 진행한다고 한다.

김영석(전)해양수산부 장관은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해 12

월 12일 첫번째로 등록을 하고, 4일 후인 16일에는 출판기념회(저서: '빛으로 쓴 한국역사')를 통하여 미래의 빛을 현재와 과거 역사에 비춰서 우리 민족의 문화 및 역사에 대한 자존감과 희망을 회복하고 이를 승화시켜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창조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12월 20일에는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발표를 통하여 오래도록 정제되어 있는 아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산업 중심의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육성시키는 등 '산업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곡교천의 기적'을 만들어 내겠다는 강한 개혁의 의지를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지난 1월 1일에는 산업과 물류의 허브로 자리잡은 아산만에 인접한 인주면 갈매리로부터 삼교와 곡교천이 만나는 성장면 신문리를 거쳐 곡교천을 따라 퍼크골프장까지 약 30키로미터의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대표 공약인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 현장을 답사하며, 실천 의지를 다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식당가 등 민생현장을 누비며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광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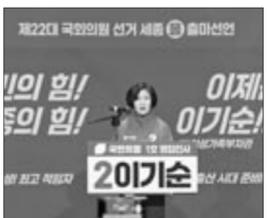
김영석 예비후보는 "아산의 비전과 희망의 산실이 될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료 시민들께서 사랑방처럼 많이 찾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수도의 대안성'을 위해서 통쾌한 역전 출판포를 쏘아올려서 세종 시민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의 완성을 뛰어 넘어서 정지와 행정, 국정과 의정 활동의 중심지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순표 세종형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에서 확대예정인 '늘봄학교'를 세종시의 방과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가정 모범적으로 안착시키고 공동육아나눔터, 세종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등 공동 아이돌봄 인프라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인재 주택도 계속 늘려나가는 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이기순 국민의힘 세종(을) 예비후보, 22대 총선 공식 출마 선언



국민의힘 비대위 첫 영입인사인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 1927' 복합문화공간에서 세종시 육아맘, 어린이집 원장, 소상공인, JCI전업 회장 등 시민대표들 10여명과 함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치를 할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며 "세종시의 첫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시다면 그동안 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자산을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붓고 헌신하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이기순 예비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이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추가적으로 적극 이전해야 한다"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와 함께 자족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경제, 교통, 교육, 의료, 생활,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등 지역 과제도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9회말 2사 만루 상황에 등판한 4번 타자처럼 '행

"서구 제2청사 및 복합커뮤니티, 대전 제3시립도서관 설립"

장종태 예비후보, 대전시의회 기자회견서 1차 공약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장종태 전 서구청장이 "관저·도안권은 서구갑 인구 25만여 명 중 43%인 1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20·30·40대 비중이 45%5만여 명에 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부족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결혼과 출산 아이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한 문화와 예술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응답하는 민생공약을 준비했다"라고 밝

혔다. 장 예비후보는 불편한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주민 맞춤형 돌봄과 문화 교육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서구제2청사 및 종합복지관 건립 ▲대전 제3시립도서관 건립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립 ▲일반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편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수원-논산역 호남선 철도 고속화사업 ▲새마을지구(가수원역) 주거산업 복합단지 조성 ▲가수원역~초차장역 호남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서대전IC 만남의 광장 조성 ▲구부지구 교육연수타운 클러스터 조성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계룡~신탄진)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주민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수원동 근린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구룡산-노루벌 연결 둘레길 조성 ▲관저동 원앙마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관저동 저수조부지(다온숲3)에 주민 편의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 이와 함께 장종태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공약으로 발표한 「저출생 종합대책」에 대해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라고 평가하며 "민주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저출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 결혼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만기 1억원을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2자녀 출산시 24평, 3자녀 출산시 33평 분양권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장종태 예비후보는 "서구청장 재임 시절에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가 실시하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공직생활 34년, 재선 서구청장으로 쌓은 경험과 실력을 서구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다짐했다.

김태성기자

대전시의회, 2024년 새해 첫 회기 돌입

제275회 임시회 열고 다음달 1일까지 67건 안건 처리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가 23일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새해 첫 번째 의사일정으로, 총 6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출된 안건은 의원발의안 15건, 시장 제출안 50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철승 의원이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명국 의원이 '대전 미래전략 2048 그랜드플랜 세부전략'을 ▲민경배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책'을 ▲김민숙 의원이 '대전형 양육수당 축소 대책 마련'을 ▲송대운 의원이 '재정위기 및 공공기관 유출 방지 대책'을 ▲박종선 의원이 '대전시-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촉구'에 대해 각각 발원하는 등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시의회의 올 한해 연간 회



기는 정례회 2회 56일, 임시회 6회 60일 등 총 8회에 걸쳐 116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시정질문 ▲세입·세출결산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일반안건 처리 등을 통해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민 중심의 열심하일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김정환기자

성일종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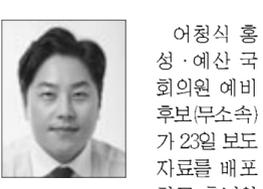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 조직위원회(위원장 정세균)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위원장 이영애)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

원을 대상으로 선정해왔다. 성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예금지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지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은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예금지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시는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어청식 예비후보 "KTX 홍성-서울 1시간 내 진입 약속 지킬 것"



충남, 충남도청의 소재지에서 위상을 바로 세우고 홍성·예산 '남북-동서 사통팔달'을 위한 서해선 KTX 홍성-서울 1시간 내 도착, 수도권 전철과 환승가능한 천

안-광천 충남동서전철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 예비후보는 "기존 정치권과 국토부가 홍성군민, 예산군민에게 약속한 서해선 KTX 홍성-서울 1시간 내 진입 및 도착 약속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현재 KTX 홍성-서울 1시간 내 진입을 위한 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사업은 2023년 9월부터 예산 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이다. 어 후보는 '예비타당성조사 결

과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만약 결과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균형발전의 원칙, 국토부 스스로 발표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기존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 덧붙였다.

충남 동서의 교통문제 마련을 위한 공약도 밝혔다. 상항선복선 전철 사업 완료에 맞춰 천안-광천까지 수도권 전철과 환승이 가능한 '충남동서전철'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고문의 (042)538-3030

“포털 뉴스 이용률, 70% 선 무너지고 종이신문 구독자는 늘어”

한국언론진흥재단, <2023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발표... 포털·텔레비전 뉴스 이용률 하락폭 커, 종이신문 반등 10%대 회복

전통 매체는 물론 인터넷 기반 매체의 뉴스 이용률도 하락

수용자가 뉴스를 이용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는 텔레비전, 인터넷 포털,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메신저 서비스 등 순서로 변화가 없었지만, 종이신문과 잡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매체별 뉴스 이용률이 하락했습니다. (조사에 처음 포함된 스포츠, OTT 제외)

· 매체별 뉴스 이용률(2021, 2023) (단위: %, %p, n=5,000)



문) 지난 1주일 동안 ○○를 통해 뉴스/시사정보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림=한국언론재단 제공>

2023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매체의 뉴스 이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털 뉴스 이용률은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69.6%)했다.

2023년 4대 뉴스 이용 매체는 텔레비전(76.2%), 인터넷 포털(69.6%),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25.1%), 메신저 서비스(14.5%)의 순으로 이전 조사와 같았으나, 인터넷 포털은 2021년 대비 9.6%p 떨어져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고, 텔레비전도 2021년 대비 7.2%p 하락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은 측정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0% 이하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은 2021년 대비 13.5%p 하락한 20대와 13.0%p 하락한 50대, 11.2%p 하락한 40대의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포털 내 뉴스 이용률은 크게 하락한 반면 인터넷 포털 이용률은 2021년 84.5%에서 83.8%로 0.7%p 감소하여 포털 내 수용자의 콘텐츠 이용이 점차 다원화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매체 전반의 뉴스 이용률 감소는 20대와 30대의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20대의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은 2021년 59.5%에서 올해 44.6%로 15%p 가까이 감소했고,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률도 2021년 95.4%에서 81.9%로 13.5%p 하락했다. SNS와 메신저 서비스에서도 20대의 뉴스 이용률은 10%p 가까이 감소했다. 30대의 경우 2021년 대비 12.8%p 하락한 텔레비전 뉴스 이용률을 제외하면 20대만큼 하락 폭이 크지는 않지만, 뉴스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뉴스 및 시사정보를 얻는 주요 경로(1개 선택)로는 10명 중 4명 이상(44.5%)이 텔레비전을 꼽았다. 한편 연령대에 따라 뉴스 이용 경로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75.7%)이 텔레비전을 주요 경로로 꼽았으나 20대에서는 8.1%로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인터넷 포털 검색엔진이라는 응답은 20대와 30대에서는 각 62.7%였지만,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각각 29.9%, 11.3%에 머물렀다.

올해 처음 측정한 스포츠와 OTT 서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스포츠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 13.7%로 나타난 가운데,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20.5%, 22.1%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50대는 12.2%, 60대 이상은 4.6%에 불과했다. OTT 서비스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1%로 높지 않은 가운데, 20대에서는 6.7%, 30대에서는 8.9%의 이용률을 보였으나, 50대는 3.2%, 60대 이상에서는 0.9%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는 뉴스 이용률의 하락과 함께 언론인과 언론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뉴스 및 시사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021년 3.32점(5점 척도 평균점)에서 3.27점으로 하락했고, '실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정보'에 대한 신뢰도는 2021년 3.48점에서 3.28점으로 더 크게 하락했다. 특히, 2021년 '실제 이용하는 뉴스 및 시사정보'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과반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3%p 하락한 39.8%로 조사되었으며, 전 연령대에 걸쳐 신뢰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1년 대비 하락했다. 2023년 조사한 10개의 직업군 중 6위로 나타나 2021년 5위보다 한 단계 낮아졌으며, 평균 점수 또한 3.04점(5점 척도 평균점)에서 2.98점으로 3점 이하로 감소하였다. 한편, 의료인은 2021년(3.61점)에 이어 2023년(3.59점)에도 10개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영향력은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공정성은 낮게 평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2021년과 비교해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지만, 모든 항목에서 부정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은 2021년 3.12점(5점 척도 평균점)에서 3.04점, 전문성은 3.55점에서 3.37점, 정확성은 3.25점에서 3.16점, 언론활동 자유는 3.67점에서 3.43점, 영향력은 3.84점에서 3.55점으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 언론의 역할별 수행 평가에서 수용자들은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3.33점), '사회적 약자 대변'을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했다(2.96점). 2021년 대비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한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변'은 2021년 3.20점에서 2023년 2.96점으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으며, 유일하게 2점대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뉴스성 기사'와 '편파적 기사' (5점 척도 평균점 기준 3.83점), '이부징 기사' (3.82점),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3.80점) 등이 꼽혔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 1개만 선택했던 2021년과 응답 방식이 달라져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당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던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정복 기자



● 특 정 ●●●

신년 교례회



김태흠 충남
도지사= 24일
오전 11시 대
전컨벤션센터
에서 열리는
충남·대전·
세종 건설인 신년 교례회에 참
석.

신앙면 연두방문



최재구 예산군
수= 24일 오전
10시 광시면,
오후 4시 신앙
면 연두방문.

적극적 드론 활용으로

행정업무 지원 추진

예산군은 드론 이용 활성화 방안
을 자체적으로 운영 수립하고 올해
다양한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
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예산군립 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임시 개관에 앞
서 드론을 활용해 원하는 각도 및 위
치에 대한 정밀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드론 운영을 위한 실시간 중
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촬영 방
법에 따라 정사 영상(좌표 포함), 경
사 영상,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지적 재조사 사업, 각종 개발
사업 및 주요 정책, 재난 예방 및 피
해 조사,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입
지 분석 정보 지원, 문화 축제 관광
사업 등 군정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
이 가능하다.

또한 군은 부서 간 행정 지원 업
무 협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향상 시
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군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날
개인 드론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
로 활용해 다양한 업무를 혁신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홍성군 집중 홍보 나서

홍성군이 지난 1월 12일 시행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따라 각 정
당이 표시·설치 가능한 현수막 개
수를 제한하고, 오는 24일부터 26일
까지 각 정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개
정안 내용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
혔다.

개정된 법령은 ▲정당이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별
2개로 제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장소는 설
치 금지 ▲설치기간 만료 후 설치자
의 자진 철거 의무 ▲표시기간과 방
법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정당법에 의거
하여 15일 기한의 정당 현수막을 사
실상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정당 현수막
이 도시 곳곳에 난립하여 도시경관
을 훼손하거나 보행자와 운전자의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등 곳에
에 불편을 일으켰다.

이에 홍성군은 지난 12일 새롭게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정당 현수막
집중점검에 나서 규정을 위반한 현
수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철거 등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복합한 허가건축과장은 "개정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
되고, 개선된 환경을 군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
박하고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국제명품 충남 마른김, 제값 받는다

충남도, 서천 김종합비즈니스센터에 전국 최초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소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으며
국제명품으로 입지를 굳힌 '충남
마른김'이 앞으로는 제값을 받고
수출길에 오를 전망이다.

도는 김 주산지 중 한 곳인 서천
군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충남
국제 마른김 거래소'가 지난 22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 거래소가 문을 열기 전 마

른김은 외국 바이어들이 업체를
개별 방문해 수출 계약을 추진하
면서 시세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
었다.

이로 인해 고품질의 상품도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중저가로 수출
계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도와 서천군은 대표 수산
식품인 마른김의 수출 가격 경쟁
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해수부 공

모사업인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에 도전, 국비 5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국제 거래소는 김산업진흥구역
지정 관련 사업 하나로, 총 사업
비 4억 4500만원(국비 2억 500만
원, 도비 1억 200만원, 군비 1억
2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을 투
입해 서천군 서면 율리 김종합비
즈니스센터 내에 마련했다.

도는 국제 바이어가 직접 거래
소를 방문해 우수한 상품을 한자
리에서 모두 보고 현장 입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만큼 고품질의
마른김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
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실제 이날 개소식에는 서천김6
차 산업화사업단 주관으로 8개국
30여 명의 국제 바이어가 참석해
입찰에 참여했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국
제 마른김 거래소 개소에 마른김

유통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
도 투명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지
역여가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종우 서천김 6차산업화 단장
은 "국제 마른김 거래소 개소를
기반으로 세계 속에 서천김의 위
상을 높여겠다"고 포부를 밝혔
다.

한편, 충남의 대표 수산식품인
'김'의 해외 수출액은 4년새 2배
넘게 증가하면서 수산식품 수출액
2억 달러 돌파라는 역대 최고 실적
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미김은 1억 1640만 6000달러
로 전년 9620만 1000달러 대비
21% 증가하면서 총 수출액의
57.5%, 6773만 1000달러로 전년
5531만 3000달러 대비 22.5% 증
가한 마른김은 총 수출액의 33.5%
를 차지했다.

김정환 기자

'가공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세종시, 30명 선착순 모집... 이론·실습교육 진행

세종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창업과
가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
는 29일부터 내달 23일까지
'2024년 농산물가공 기본교육'
교육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한
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에 거주
중인 시민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기간은 3월 5일부
터 4월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
예정자에게 필요한 식품의 기
초이론 및 가공식품의 특성과
활용, 식품제조 가공을 위한 행
정절차, 세무 방법 등으로 구성
됐다.

또 가공지원센터의 가공장비
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대한 다
양한 실습도 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
공제품 생산을 원하는 시민은
농산물가공기본 교육을 70%
이상 참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
다. 수료자에 한해 가공지원센

터를 이용가능한 법인가입자격
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농
산물가공 기본과정을 수료한
시민들은 가공지원센터에서 가
공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할 후
국수, 과채주스, 잼, 분말 등 87
가지 품목을 제조해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하고 있다.

한종구 특화지원과장은 "교
육을 통해 농업인, 시민들의 가
공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교육신청은 연서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2층 특화지원과
농식품산업팀 ☎044-301-
2764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yushin819@koreankr)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
집(www.sejong.go.kr) 또는 세
종시 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에 특별난방비 지원

재해구호기금 11억 7,600만원 투입... 난방비 부담 완화 기대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매서운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난방비를 지원
한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11억 7,600
만 원을 긴급 투입해 지난 19일 1

~2월 특별난방비 지급을 완료했
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과 규모는 취약
계층 11억 2,100만 원, 사회복지지
시설 5,600만 원 등이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총 5,606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이 지원됐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된 시설 86곳으
로, 시설 유형과 규모에 따라 시설
당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됐다.

시는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
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및 시설
에 각각 현금으로 즉시 지급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난방비 증
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
리기 위해 난방비 특별지원을 했
다"며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
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
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
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농업용 양수장 정비사업에 11억원 투입

노후시설 개량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기대

예산군은 신앙면 안산동, 신앙
면 귀곡1, 광시면 하장대 등 관내
노후양수장 3개소에 대해 올해 총
11억원을 투입해 전면 개보수사업
을 추진한다.

해당 시설들은 설치 후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시설이며, 성능 저
하, 잦은 고장 등으로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충
남도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 총
예산 11억(도비 6억 8000만원, 군
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2월 말까지 실시 설계와 행
정 절차를 마치고 4월 말까지 공사
를 완료해 영농기 시작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화된 시설로
불편을 겪는 농민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물 걱정 없는 영농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현장에
직접 나와 농민과 소통하는 가운
데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충남도 관계
자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
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홍성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로 산불 원천 차단

장곡면 산성리 일원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캠페인

홍성군이 매년 영농부산물 소각
으로 인한 산불이 다발함에 따라
산불 예방 및 경각심 확산을 위해
22일 장곡면 산성리 일원에서 영
농부산물 수거·파쇄 캠페인을 실
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홍성군 산림녹
지과와 충남도, 홍성군산림조합,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산림재해 스
피드방사대 등 40여 명이 참석하
여 산림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
(고춧대, 짚대 등)을 수거·파쇄하
고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홍
보 캠페인과 드론 산불 예방 공중
계도 함께 진행했다.

매년 전국에서 평균 536건의 산

불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영농부
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불이 138건(26%)으로 불
법소각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수거·파쇄하
고 산불 예방뿐만 아니라 미세먼
지 저감효과와 파쇄된 부산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산불
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피
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라
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
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폭넓은 심뇌혈관질환 사업으로

예산군, 건강한 예산 만들기 총력

심뇌혈관질환 전 단계부터 질환자까지 밀착관리

예산군 보건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뇌혈관 질환 예
방 관리 사업에 더 총력을 기울
일 방침이다.

지난해 지역 사회 건강 조사
통계에 따르면 예산군 합인 인
지율은 67.4%로 2022년도
67.1% 대비 0.3% 증가했으며,
혈당인지율은 35.3%로 2022년
도 35.1% 대비 0.2% 증가수치
를 보이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나
타냈다.

이에 보건소는 만성질환 예
방 관리 사업 분야에서 충남도
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로를 인정 받았다.

보건소는 지난해 주요 사업
으로 ▲이동 수단 등 문제로 교
육을 받기 어려운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혈관 튼튼교
실(30개소, 480명) ▲만성질환
이환자 대상 운동 처방 사업인
고혈압·당뇨 운동 교실(46명)
▲건강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하
는 성인병 교실(2633건) ▲정
보 통신기술(ICT) 활용 만성질
환 전단계 대상자 건강 관리 사
업 모바일헬스케어(120명) ▲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1342명) 등을 추진
했다.

특히 심뇌혈관 질환 증증 이
환 예방 및 사망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심뇌혈관 질환 합병
증 검진비 지원 사업'은 수검자
중 70세 이상이 66%, 유소견자
는 전체 수검자 1342명 중 641
명(48%)으로 나타났으며, 주
요 소견 항목은 당화혈색소(41%),
경동 맥초음파(35%)로 나타났
고 432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3%(400명)의
대상자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
했다.

또한 올해 보건소는 지난해
사업에서 나아가 청장년부터
노인까지 아우르는 영양·비
만·신체활동 등을 연계한 '원
스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장년
체지방·피로 감소(DOWN) 야
간 영양 교실 ▲만성질환 예방
경로당 영양 교육 ▲건강 검진
유소견자 사업 연계 관리 ▲직
장인 스트레칭 운동 교실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심뇌 혈관질환
은 2022년 기준 전체 사망률의
18%를 차지하고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막대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
는 만큼 질환 전 단계 대상자부
터 이환자 까지 촘촘하게 관리
해 건강한 예산군을 만들어 나
가겠다"고 말했다.

예산 = 박재화 기자

새해맞이 우리 마을 '줍깅' 활동

다정동, 상가밀집지·통학로 쓰레기 수거

세종시 다정동동장 이창모
이 23일 자유총연맹 다정동위
원회(위원장 옥치국)와 함께
상가밀집지역, 근린공원, 통학
로를 중심으로 '우리마을 가
꾸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
다.

이날 다정동 직원과 한국자
유총연맹 다정동위원회 등 20
여 명이 간단한 운동과 환경정
화를 병행하는 '줍깅'을 통해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했
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지역과 근린공원 주변 일
대를 돌며 방치된 쓰레기를 수
거하고 통학로에 버려진 일회
용품, 담배꽂초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집

중수거했다.
중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한 가로변과 근린공원의 정원
가꾸기 대상지 주변도 정비해
품격있는 정원도시 세종만들기
에 동참했다.

옥치국 자유총연맹 다정동위
원회 위원장은 "추운 날씨 속
에서도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
들기 위해 동참해 주신 참여자
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다정동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
했다.

김태선 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우리/동네

부르면 오는 '천안 콜버스' 운행 구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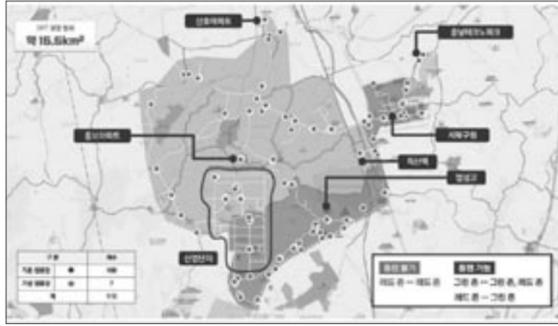
충남테크노파크, 상덕리, 마정리, 양당리 등 구간 포함

천안시가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오는 '천안 콜버스' 운행 구간을 확대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 콜버스는 수요응답형 교통 대중교통 서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실시간 호출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계·운영한다.

천안시는 노선 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지역에 시민체감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직산읍 일대에서 콜버스운행을 시작했다.

시는 당초 직산읍 일대(약 8km²·2·4산업단지~직산역~서북구청



구간 총 89개 정류장을 대상으로 콜버스 권역을 설계했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제기된 주민의견을 수렴해 콜버스 구간 면적을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된 구간은 충남테크

노파크, 상덕리, 마정리, 양당리 등 7.5km² 정류장 26개소로 총 15.5km², 115개소 정류장에서 콜버스 이용이 가능하다.

오전 6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한다. 마지막 호출가능 시

간은 오후 9시30분까지이다. 기존 시내버스 요금이 적용되고 수도권 전철 환승할인 등 할인혜택 또한 유지된다.

시는 이동수요와 효과 등을 분석해 상반기 중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 이용이 불편한 마을까지 교통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상반기 중으로 운행지역을 확대해 교통소외지역이 없는 천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오는 27일부터 신규 개발지역 지선·순환노선 신설, 도심 순환 급행버스 서비스 강화, 동부권 급행 노선 신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천안 콜버스 도입 등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천안=이정복기자

통정

최종보고회



보고회에 참석.

박상돈 천안시장 = 24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천호지 야간경관개선 및 공간특성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

천안서북소방서 "겨울철 도로결빙에 주의하세요"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강기원)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따른 도로 위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동안 전국에서 눈이 오는 날 5,20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8,523/사망 90, 부상 8,4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도로살얼을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사고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기상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각 기관에서 겨울철 도로 위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천안서북소방서 역시 출동 부서 대원들에게 출동 시 안전운행을 당부했으며 시민들에게는 겨울철 도로 위 빙판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서행 운전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 확인 ▲빙판길 진입 시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금지 등을 강조했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도로 위 빙판길 사고는 방심하는 순간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운전 시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헌의사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금 전달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형)은 23일 천안시헌의사회(회장 서정욱)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후원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천안시헌의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업 및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 등을 참여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 때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서정욱 회장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이운형 이사장은 "소외계층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천안시헌의사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게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도솔신용협동조합 취약계층 지원 및 적십자회비 납부

백석동에 700만원 기부금 전달

천안시 백석동(동장 정우영)은 23일 도솔신용협동조합이 사장 진호철이 취약계층 지원 및 적십자회비 납부를 위한 기부금 7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도솔신용협동조합은 매년 백석동 이웃을 위하여 성금을 전달하면서 백석동과 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2023년 천안시 나눔문화 확산 천안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진호철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영 백석동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전해주시는 도솔신용협동조합에 감사드립니다"며 "전해주시는 기부금은 백석동 이웃을 살피고 돕는데 정성껏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시 중앙동, 20통경로당

취약계층에 후원금 100만원 전달

천안시 중앙동(동장 장상문)은 23일 20통경로당(회장 이운표)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20통경로당은 무료급식소를 위한 식재료 지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상반기에 이웃돕기 성금을 꾸준히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운표 회장은 "경로당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작은 성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문 중앙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외되는 중앙동 주민들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제2기 어린이의회 의원들 천안시발전 위한 정책제안 발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 비롯한 의원들과 26명의 제2기 어린이의회 의원들 모여



지난 22일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천안시의회 정도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26명의 제2기 어린이의회 의원들이 모여 천안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어린이 관련 정책 제안과 정책 공유회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4건의 정책제안 발표와 3건의 자유발언

을 진행하였다. 위원회별 정책제안 발표로는 ▲천안시 어린이에게 아동카드를 발급하자(경제산업위원회),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교육 및 선도 대상 범위를 확대하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 건립하자(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에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 정책을 제안한다(건설교통위원회)가 있었으며,

자유발언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다인승 탑승을 제한하자(이상협 어린이의원),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자(이혜림 어린이의원), ▲무인점포의 출입인 증시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자(황지 어린이의원)가 있었다.

제2기 어린이의회는 2023년 8월 24일에 발대식을 갖고 경제산업, 행정안전, 복지문화, 건설교통의 4개 위원회로 나뉘어 시의원과 26명의 어린이의회원이 멘토-멘티로 결합하여 시작하였다. 이후 관계심 강화와 의회 역할 이해를 위한 역량강화워크숍,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한 리더십아카데미, 정책실문조사, 정책제안서 작성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2023년 12월 9일에 정책 제안공유회를 열어 정책에 대한 피

드백을 주고받은 바 있다. 이번 정책제안발표회는 이러한 과정의 마무리로서 어린이의회 의원들이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제안에 대한 격려와 간단한 평을 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천안시 의원들과 어린이의원들과의 멘토-멘티의 결연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정도희 의장은 "두 번째 맞이하는 어린이의회 정책제안 발표회를 보면서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신선한 제안들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기 이후 장기간 열리지 못했던 만큼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어린이의회 수료식은 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천안시,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25% 지역화폐로 환급

통근 통학 인구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통근 통학 인구의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

안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화폐 환급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서 사용한 정기승차

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2024년 신입생 모집

천안시청소년수련관(관장 정화진)은 방과후아카데미 신입생을 상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는 중학교 1~3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개 학급의 총 4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아카데미는 하교 후인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수학, 영어 등 교과학습과 방송댄스, 밴드, 메이커, 베이킹, 퍼포먼스 난타, 원예테라피 등으로 구성됐다.

겨울방학기간인 1월과 2월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원 차량운행으로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방과후아카데미에서는 분기별로 1회 토요체험 활동과

봉사 활동 등 다양한 외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시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궁금한 사항은 수련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041-900-0905)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희 예비후보 "기상특보 발표시 교통단속 일시정지법 추진"

천안에 이틀동안 폭설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희(전)국회의원은 기상특보 발표시 교통단속을 일시정지하는 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희 전국회의원은 "폭설, 태풍, 장마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기상악조건에서는 서행 및 차간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불안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고, 급정거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폭설, 태풍, 장마등 기상특보 발표시에 교통단속을 일시정지하는 법 추진을 통해 시민과 국민이 더 안전한 운전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천안에 이틀동안 폭설이 내리며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상태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희(전)국회의원은 기상특보 발표시 교통단속을 일시정지하는 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천안시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규희 전국

회의원은 "폭설, 태풍, 장마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기상악조건에서는 서행 및 차간거리 확보를 통해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로 인해 평소보다 더 불안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고, 급정거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과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폭설, 태풍, 장마등 기상특보 발표시에 교통단속을 일시정지하는 법 추진을 통해 시민과 국민이 더 안전한 운전을 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이산소방서,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부서 초도 순시 이산소방서는 제22대 서장으로 취임한 김희식 서장이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안전센터(구소대)와 지역대 등 현장출동부서에 대한 초도순시를 하고 밝혔다. 이번 초도순시는 직접 당면 현인업무 파악하고, 청사 개선 사항 및 고충사항을 청취하며 현장부서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논산소방서,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23일 노블레스웨딩홀에서 논산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이·취임식은 백성현 논산시장, 오인환·도익원, 서원 논산시장 등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양소방서,전담의용소방대 현장대응능력 강화 교육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지난 19일, 전담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 신익지역 및 화목마을리 사용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 현장에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교육을 진행했다.

천안시립미술관, 문화자원봉사자 모집

천안시립미술관은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문화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전문자원봉사자(도슨트), 일반자원봉사자(전시안내·요원) 2개 분야이며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문화자원봉사자는 미술관 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초교육 이수 후 전시실 관람안내, 전시해설, 작품보조, 미술관 교육 및 행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보령소방서, 출동 대안 통계자료 발표

‘2023 소방활동 통계 분석’

보령소방서(서장 이상근)는 2023년 관내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보령소방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41건으로 인명피해(사망자 0명, 부상자 5명)와 35억 1,6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발화 요인은 전기적 요인 49건(34.7%), 부주의 40건(28.3%), 기계적 요인 28건(19.8%), 그 외 17건(12.2%)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장소별로는 비주거 65건(46%), 주거 29건(20.5%), 기타 20건(14.1%), 자동차 13건(9.2%), 임야 11건(7.8%), 선박 3건(2.4%) 순으로 파악됐다. 또한 구조 출동은 총 1,744건 중 299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고 구급 출동 10,653건 중 5,45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는 전년 대비 구조 출동 건수는 120건(-6.4%), 구조 인원은 89건(-22.9%) 감소하였고 구급 출동 건수도 109건(-1%), 이송건수 179건(-3.2%) 줄어 들었다.

사고 유형별 구조 활동을 분석해 보면 화재가 304건(27.5%)로 가장 많았고 위치확인 278건(25.2%), 수난사고 167건(15.1%) 순으로 나타났다.

구급 활동 이송환자 유형별로는 질병 3,657명(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부상 1,040명(19%), 교통사고 517명(9.4%) 그 외 241명(4.6%) 순으로 파악됐다.

생활안전 활동으로는 1,876건 출동하였으며 벌집제거 702건(37.3%), 동물포획 496건(26.4%), 안전조치 136건(7.2%) 순으로 집계됐다.

이상근 소방서장은 “지난해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힘쓰겠다”라며 “보령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보령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보령=김태선기자

갑천모니터링중 2종의 멸종위기종 확인

대전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 야생생물 잿빛개구리매 큰말뚝가리 월동중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오전 갑천탐립둑보의 먹이주기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잿빛개구리매와 큰말뚝가리를 확인했다. 두 종 모두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맹금류이다.



큰말뚝가리 역시 대한민국 전역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이다. 과거 남부지방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새였으나, 최근 매우 희귀한 철새가 되었고,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17일 확인된 두 종은 모두 대전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다. 대전의 갑천과 3대 하천에서는 최근 꾸준히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조류와 희귀종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대전의 하천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순환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다. 빗물순환 시스템을 토대로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 3대 하천(제외지)의 경우 이미 200년 빈도의 홍수량에 견딜 수 있게 제방이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 1미터를 더 쌓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계내지)은 200년 빈도의 홍수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이 격차를 해소하는 도시계획이 홍수예방에 필요하다. 하천에 홍수대책이 굳이 필요하다면 횡단구조물(보, 낙차공)을 철거하는 것이 홍수효과가 더 높다.

2008년 4대강 정비사업으로 대

하지만 대전시는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하천을 다시 대규모 준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33곳의 준설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준설 계획은 다시 찾아오는 철새들과 맹금류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준설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 장기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실제 예방효과도 거의 없다. 더욱이 하천에 설치된 횡단구조물(보, 낙차공, 하상보호공)으로 인해 준설효과는 반감되

기 때문이다. 준설은 홍수예방 사업이 아니다. 도시의 경우 홍수를 예방하는 것은 하천이 아니라 도시 내에 물

충남도 “설 명절 과대포장 안 돼요!”

설 명절 포장 폐기물 대량발생 억제 목적 과대포장 집중 점검

충남도는 설 명절 포장 폐기물의 대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도내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절 기간 판매량이 많은

제품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종합선물세트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은 도내 1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며, 점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유발은 물론 그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된다”며 “과대포장 근절은 단순한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또한 현명한 소비를 통해 무분별한 과대포장 억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전교조 충남지부 “교사에 늘봄학교 업무 전가하지 말라”

“정규수업 이후에도 돌봄수업 추가로 해야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늘봄학교’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2일 충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으로 기존 교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교육청이 계획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보면 1학년 교실을 늘봄학교 교실로 사용하고, 학교에서 재료비 등 늘봄학교 관련 재정을 지출하게 돼 있다”며 “1학년 담임들에게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체 강사로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연구실이 없는 초등학교에서 교실을 비우게 되면 교사들은 갈 곳 없이 학교를

유령처럼 떠돌게 된다”며 “교육부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를 초등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대로라면 교사들은 정규수업 이후에도 돌봄수업을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돌봄전담사가 있는 타 시도와 달리 충남의 경우 방과 후 부장이 일체 선정부터 계약, 정산까지, 소규모학교는 강사를 섭외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이 이뤄지면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사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지역 1106명의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서명을 했다”며 “교육청과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늘봄학교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복기자

금산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공동주택 화재의 안전확보! 피난시설 이용법

금산소방서(서장 김중욱)는 최근 잇따라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 나섰다.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대표적으로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대피공간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 ▲발코니에 설치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간막이 ▲발코니를 통해 위, 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지 사다리인 하강식 피난구 등이 있다.

대피 공간은 출입문은 방화문이며 화재 발생 시 피난 가능한 2m2

이상의 공간으로 건물 밖으로 대피가 어려울시 대피공간으로 피난하면 된다.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3층 이상 10층이하에 설치된다.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하중은 150kg으로 2명 이상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경량구조간막이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등에 설치하는 약 9mm 정도의 석고보드로 돼있다.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해 세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비

됐으며 1992년 10월 이후 지어진 아파트에는 이 경량구조간막이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마지막으로 하강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지 사다리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강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김중욱 소방서장은 “아파트 화재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입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개선된 공동주택 피난안전대책이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대전 서구구청장 서철모는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월 8일까지 제수·선물용 판매 품목을 중점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설 수산물 특별점검은 제수용,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옥돔 등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수입량 증가와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의 판매업체를 중점으로 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표시 유효 필서를 확실히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 표시 판매 행위 등 근절하고자 위한 것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며, 허위표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권혁민 소방본부장 초도 방문

권혁민 소방본부장 공주소방서 방문해 직원들 격려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지난 22일, 충남소방본부장의 초도 방문에 따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제18대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공주소방서 2024년 주요 현안업무 및 부서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각 과와 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권혁민 충남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 공주시민을 위해 힘써주는 직원들이 있어 항상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

당진소방서는 23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시장, 당진시의장, 국회의원, 관계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당진소방서는 23일,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당진시장, 국회의원, 관계기관 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당진소방서 의용소방대장 합동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 업무를 보 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당진소방서에는 총 26개 대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700여 명의 대원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이·취임식은 이임하는 8명의 대장 ▲합덕남대 박성식 ▲합덕여대 이용남 ▲송산 전담대 송경희 ▲송산 전담대 홍시필 ▲송악남대 한진 지역대 이창복 ▲석문삼봉 전담대 양낙창 ▲석문남지도 전담대 허상의 ▲고대여대 이영미 ▲우강여대 강지영)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로 가졌다.

당진=최근수기자

교육부 “올해 마이스터대 3곳 신규 선정”

전문대학 중 3곳 마이스터대로 추가 선정...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

교육부가 올해 전문대학 중 3곳을 마이스터대로 추가 선정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오는 24일부터 경주 힐튼호텔에서 마이스터대 지원사업 성과토론회를 개최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마이스터대 사업은 교육부가 고숙련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2021년 도입한 사업이다. 고숙련 기술인재란 기업의 기술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원천기술까지 개발 가능한 최고 기술자를 말한다. 교육부는 전공심화·전문학사·전문기술석

사과정을 운영 중인 전문대학 중에서 마이스터대를 선정하고 있다.

도입 첫 해에는 대림대·동양미래대 등 전문대학 연합 5곳을 선정, 시범 운영했다. 이어 작년에는 대구과학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동원과학기술대·연암대·울산과학기술대 등 5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신규 인가받은 전문대학 중 3개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2월에는 마이스터대 시범 사업에 참여한 8개교에서 116명의 전문기술석

사과 첫 배출된다. 이 가운데 90%인 105명이 학위를 취득했다. 이들은 ▲기능장·기술사·명장 등 고숙련자격증(2명) ▲특허(5명) ▲기업 애로기술 해결 또는 기술 개발 보고서(98명) 등 비논문 방식으로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성과토론회에선 마이스터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6개 전문대학과 시범 운영이 종료된 전문대학이 참여,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조정밀교육전문기술석사학위(영진전문대)를 취득한 강병하 학생은 “전문기술석사과정을 통해 현

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애로기술을 해결했다”며 “기존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으로 불량이 높아 금액 제작이 힘들었는데 실무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과 함께 최적의 조건을 찾아 금액 제작에 적용한 결과 불량을 낮추게 돼 제품 생산·판매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최창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전문대학이 현장 수요에 맞는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천안교육지원청, 유치원·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 연수 실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9일 2024학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학 적응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준비를 위한 지원 방안과 급별 교육과정, 개별화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천안병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백선희, 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경민을 각각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예정 연수 강사로 위촉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개별화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등 실제 유치원과 학교생활에 대해 강의했다.

연수에 참여한 보호자는 “입학을 위한 준비 방법과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알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연수 덕분에 궁금증도, 불안감도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종덕 교육장은 “새롭게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유치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대학생 교육봉사 운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진기성)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8일부터 2월 29일까지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교육봉사(209시간) 멘토링을 운영 지원한다.

대학생 교육봉사는 청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인근 대학 교육학과, 사범대학 관련학부 대학생과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해 학습이나 예체능 등 재능기부를 통한 멘토 활동을 여름·겨울 방학 중에 운영하는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공주교육대학 재학생 8명이 초·중등 100여 명의 학생에게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 대학생에게는 미래의 교사상을 다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다채로운 경험과 조언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해 본다.

청양=정성범기자

“교대 미달, 자퇴 증가 등 교단기 피 심화...학생 교육력 약화 우려”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남일)는 “교직 인기 하락을 넘어 교단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권 추락과 함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인공 감축,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학생의 교직 기피는 결국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자원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종은 “학령인구 감소를 정책에서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계적 경제 논리만 앞세워 신규인용 축소, 교육재정 감축만 추진하는 것은 학생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과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종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 관련 해 먼저 교원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보완과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교육청, ‘대학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나눔자리’ 마련

예비교사들의 정책 연구 결과 공유로 동반성장의 기회 가져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2일 충남교육청 1회의실에서 교육청과 교원양성대학 간의 ‘관학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24 예비교사들의 교육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충남 교육정책 관련 주제로 연구한

논문 중 우수 논문 여섯 편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자리로 도교육청과 공주대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학생들이 발표한 연구 주제는 ▲ OECD education 2030의 학습자 행위주체성 함양을 위한 수업 연구 ▲ 교사 협력이 교육과정 분해력에 미치는 영향 ▲ 유

아 통합교육 정책에 대한 일반유아교사와 유아특수교사의 인식과 평가 및 지원 요구 ▲교권 인식과 교직 만족도 간의 상관 연구 ▲안전한 과학실험 문화 조성을 통한 과학탐구 기반 수업 활성화 연구 ▲기초매체분해력의 교수학습 방안 제안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충남 교육정책에 대한 고민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발표회에 참석한 도교육청의 업무 담당자들은 예비교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연구에 대한 조인과 평가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예비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이며, 희망찬 미래”라고 격려하며, “스스로 주도성을 발휘하여 아이들의 미래와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정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겨울방학 초등학교 돌봄 교실 점검

따뜻하고 안전한 교실에서 보내는 겨울방학!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부터 22

일까지 겨울방학 초등학교 돌봄 교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 교육 실시 ▲안전 책임 임무 부여 ▲급간식 안전과예방 관리 ▲시설 안전 관리 분야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서면으로 점검한 후 현장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겨울방학 당진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관내 32개교 중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진행 중인 2개교를 제외한 30개교 대상 52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22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김희숙 교육장은 “겨울방학 중 돌봄 교실 운영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운영 관리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교육지원청, 한파 속 눈 치우기 운동 전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3일(화) 한파 속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했다.

전날부터 밤새 내린 눈으로 아산교육지원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한파와 눈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직접 나서 아산교육지원청 인근의 눈을 치웠다. 이번 대설주의보는 다음날인 24일(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아산교육지원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서우 교육장은 “이번 대설주의보 기간에 철저한 대비와 대처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며 “더불어 교육가족 모두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교육청, 2024년 교육결손 해소 지원 계획 수립·운영

2025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정상 회복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누적된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 및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교육결손 해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설문 결과(학생: 실제 교과성적이 낮아졌다(76.4%), 흥미도가 상승했다(77.2%).

2023년 설문 결과(교사: 긍정적 교우관계(71.5%), 심리·정서적 안정(67.0%), 학교생활 적응(52.5%).

대전교육청은 연례미 상황 속 변화된 국민정서 및 체감도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약 2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2024년 교육결손 해소 지원’을 계획하였으며,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육 틀 안에서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의 수준과 요구를 반영한 교과학습 보충 지원(9개 사업) ▲둘째,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학교생활 적응 등을 위한 교육청·학교 단위의 프로그램 지원(5개 사업) ▲셋째, 학습진단 결과 결손을 입은 학생 등 배움이

느린 학생의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개별화 지도를 위한 학습지원 튜터 인력 지원(2개 사업) ▲넷째, 현장 안착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부사업 추진 현황 점검 및 성과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내실화 지원(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학습지원대상 외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결손이 생긴 중상위권 학생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여 현장성 높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한 도움자료 제공 등 교원업무 경감하고,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교육을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올해도 교육결손 해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코로나로 인한 결손이 회복되어 실력을 갖추고 꿈과 마음이 건강한 대전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 2곳 전기·소방설비 등 집중 안전 점검



세종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소장 박찬용)는, 이 시설지원사업소는 1월 23일에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안전 점검은 지난 12월 27일에 있었던 자체 전기 안전 점검 후 실시한 점검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세

종소방서, 조지원소방서가 합동으로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지원사업소는 습기가 많은 수영장 내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관리 상태와 유도등, 비상구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유관기관 합동점검 점검 결과, 세종국민체육센터와 한솔수영장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용 시설지원사업소장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선문대 ‘선문초등영어캠프’ 성료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19일 발표회를 끝으로 제40회선문초등영어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Dream Big!’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40회선문초등영어캠프는 아산시 18개 초등학교 3-6학년 7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주간 영어 집중 이수형식으로 진행됐다.

문화재청, 국가유산 분야 취업준비 인턴 100명 선발

국가유산 산업 분야 청년 인턴 공개 모집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한국문화재단 단 은 라 인 체 용 시 스 템 (https://heritagerecruitment.kr/)을 통해 ‘국가유산 산업 청년 인턴’ 100명을 공모한다.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국가유산 분야 취업과 관련 경력의 확대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1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의 인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주식회사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등 국가유산 활용 관련 경력의 확대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1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의 인턴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공모에 앞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인턴 운영기관을 공모해 ‘주식회사 미담문화콘텐츠연구소’ 등 국가유산 활용 관련 경력의 확대를 돕기 위해 2022년부터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원 규모로 청년 인턴 100명을 선발하여 6개월간 국가유산 산업 인턴 운영기관

을 선정할바 있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모집 마감일 기준)의 국가유산 관련 분야 취업준비자로 학력·전공 등 제한이 없으며, 인턴 수행의 지와 직무적합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하루 8시간 주 5일제, 월 206만 원(세전) 수준의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실습을 수행할 예정이다.

▲ 공고일 현재 취업이 결정된 자 ▲ 타 부처 인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 최근 2년 중 1년(1년 기준 180일) 이상 등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인턴 참여가 제한되며,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단 문화교육팀(☎02-3101-1707~170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복기자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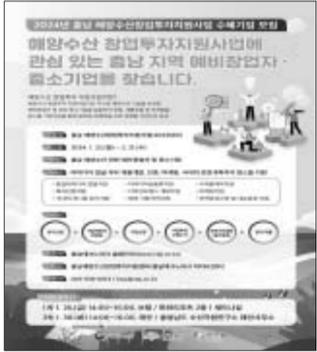
도, 총사업비 17억 투입 14개 프로그램 지원... 다음달 21일까지 접수

충남도는 올해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에 총 17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및 유망 기업 발굴·육성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국비 50%(8억 5000만 원)를 포함해 창업 지원 등 6개 분야 14개 프로그램 총 64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내용은 ▲창업 지원 4건 ▲투자 연계 2회 ▲제품화 5건 ▲기술혁신 22건 ▲판매 활성화 24건 ▲역량 강화 7



회 등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이며,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예비 창업자는 다음달 2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ky@ctp.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ctpark.kr) 공지사항 또는 도와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창업 6개사를 포함해 56개 기업을 지원, 전년 대비 기업 매출 189억원 증가, 수출액 115억원 증가 및 신규

고용 177명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 168회의 기업 방문(컨설팅)을 추진해 참여 기업들로부터 만족도 4.73점(5점 기준)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 창업 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에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펼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도내 유망 기업의 성장과 해양·수산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 연시 총회 열려

이임 음면동 회장 감사패 수여·불우이웃 돕기성금 기탁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는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중강의실에서 12개 읍·면·동 임원, 대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이임 농촌지도자 읍·면·동 회장 9명에 대해 당진시장 감사패 수여,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재직기념패를 수여했으며, 신임 회장으로는 ▲고대면 이순길 ▲합덕읍 조성원 ▲석문면 김철우 ▲당진동 송교성 ▲송악읍 지대관 ▲대호지면 김창선 ▲순성면 이기선 ▲우강면 김익환 ▲신평면 안동혁 회장이 선임됐다.

또한, 지난해 4백만 원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전달한 데 이어, 올해에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2백만 원을

추가 기탁했다.

올해 제 30대를 맞이하는 농촌지도자 당진시연합회는 임기는 3년이며, 연합회장 양의표, 부회장 박영일, 윤성열, 감사 조성원, 김영성, 김철우 사무국장으로 구성됐다.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속에서 우에·봉사·창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농업의 선도자로 12개 읍·면별 농촌지도자회 연합회장단 조직을 통해 읍·면의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진시 농촌지도자는 총 1,08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장애인복지 권리구제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산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개별 서비스 신청 안내 및 공무원 직권 신청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지난해 장애인(아동) 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복지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259명에게 각종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여 160명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이 1인 가구 130만 원(2023년 대비 +8만 원), 부부가구 208만 원(2023년 대비 +12만 8천 원)으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들이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홍성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피해 보상

홍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4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주택, 소상공인(상가·공장), 온실 등에 대해 70%를 지원하고, 풍수해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래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에 대해서는 70%에서

100%까지 상향 적용되어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7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최기순 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했다.

품목	단위	변동률 (%)
쌀	100kg	66%
소고기	1kg	15%
돼지고기	1kg	15%
닭고기	1kg	15%
계란	100개	15%
우유	1L	15%
설탕	1kg	15%
식용유	1L	15%
파스타	1kg	15%
라면	10개	15%
커피	1kg	15%
차	1kg	15%
과일	1kg	15%
채소	1kg	15%
생선	1kg	15%
계란	100개	15%
우유	1L	15%
설탕	1kg	15%
식용유	1L	15%
파스타	1kg	15%
라면	10개	15%
커피	1kg	15%
차	1kg	15%
과일	1kg	15%
채소	1kg	15%
생선	1kg	15%

aT 대전세종충남본부

'이번 주는 얼마유?'(1월 넷째 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aT, 본부장 안병희)는 대전지역 농수산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 전통역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장바구니 물가정보 '이번 주는 얼마유?'(1월 넷째 주)를 발행했다.

aT 관계자에 따르면 "청양고추는 한파 및 일조시간 부족으로 인한 산지 생산량 감소로 시장으로 반입되는 물량도 대폭 줄어들면서 상품 100g 기준 지난 주 대비 66% 오른 166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가을작기 수확 마무리 및 겨울작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당분간 고추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나,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 소비 및 거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이 보합세"라 전망했다.

또한, "무는 우천 및 우설 등 산지 기상 악화로 인해 출하량이 감소해 상품 1개 기준 지난 주 대비 15% 오른 1870원에 거래됐으며, 향후,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점차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격의 강보합세가 전망된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중기사랑나눔재단

제60차 중소기업합동봉사활동 실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합동봉사단이 지난 20일 서울랜드에서 지은보육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눈썰매장 체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아동과 봉사자가 1대1로 짝을 이루고 함께 눈썰매와 놀이기구를 타며 겨울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손인국 이사장은 "2024년 첫 봉사활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나는 추억과 잊지 못할 경험을 만들어준 중소기업합동봉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체험 봉사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공주밤 유통망 확대로 밤 산업 활성화 도모

알밤박람회 기간 품평회, 온라인 방송 판매, 유통전문가 팸투어 등 진행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공주밤의 유통망을 확대해 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개막하는 '2024 대한민국 알밤박람회 in공주' 기간 공주시와 공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주시산림조합, ㈜참조은SF, 세븐일레븐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 ▲공주알밤 검증·공급 사후관리 ▲공주알밤 가공상품 시생산 및 제조 ▲세븐일레븐 전국 가맹점내 공주알밤 상품 유통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전문가(MD)를 초청한 공주알밤 품평회도 개최한다.

홀쇼핑과 대형마트, 백화점의 유통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공주알밤 생산농가가 내놓은 알밤에 대한 품질 평가와 구매 상담 등을 유도하며 유통망 확대에 나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맞춰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도 적극 활용한다.

시는 축제 마지막 날인 28일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행사장 주무대에서 공주알밤 가공 상품에 대한 네이버 라이브커머스를 진행, 비대면 마케팅 시장 개척에도 문을 두드린다.

계속해서 공주밤 생산 소득 증진 방안과 밤가공 제품 소비 증진 등 밤 산업의 현재와 공주알밤 산업의 미래를 살펴볼



는 토론회도 마련해 밤산업 종사자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는 시간도 갖는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대 LINC3.0사업단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발표회' 성료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LINC3.0사업단(단장 이영환 산학부총장)이 22일 교내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최종 성과발표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대 LINC3.0사업단은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 간 사업비 약 6억 8150만 원 규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수행했다. 이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담당교수, 참여기업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심사위원단이 참석해 ▲DC한방바이오ICC ▲시켈스케어ICC ▲DC환경안전ICC ▲문화디자인기술ICC 과제 수행기업 총 21개사를 대상으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이번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는 지자체 연계 협업과제도 수행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쌀 전업농 새해 맞아 이웃사랑 쌀 기탁

예산군, 어려운 이웃과 희망찬 새해맞이 기대

예산군은 쌀 전업농 예산군 연합회(연합회장 신현모)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23일 군에 10kg 포장 백미 100포(3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연합회는 각 읍면에 7개 지회로 구성돼 있으며, 군의 고품질 쌀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쌀 소비 감소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비 촉진 행사를 펼치는 등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현모 연합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

아 쌀 전업 농에서 기탁한 쌀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쌀 전업농의 활동이 예산군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쌀 전업 농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쌀 소비가 더 증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백미 100포는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예산=박재희기자

서산시 설 명절맞이 농특산물 적극 홍보

관내 주요 기업체 대상 농특산물 홍보·대도시 직거래장터 참가

충남 서산시가 지난 18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주요 기업체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4개 업체를 방문해 설맞이 선물용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강조하고 서산 프래몰과 우체국 소평몰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판촉전을 홍보했다.

시는 방문한 기업이 서산 농특산물을 구매할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생산 농가와 구매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판촉 활동으로 농가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하고 관내 기업체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이미지 향상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오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등 대도시에서 개최하는 설맞이 직거래장터에 관내 업체 참가를 유도해 생강한과, 조청, 표고버섯, 버섯 떡갈비 등 명절 수요가 높은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산인삼농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지역 홀플러스 10개 점에서 1월 29일부터 11일간 수삼 선물 세트 판촉전을 진행해 서산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설맞이 온라인판촉전은 서산프레몰(<http://www.seosantre.com>)과 우체국 소평몰(<https://mall.epost.go.kr>)에서 오는 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서산=김정환기자



국기철도공단 영남본부(본부장 박연수)는 경북 경산시 중산지구와 옥산2구를 연결하는 '중산지하차도 신설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고 지난 22일 개통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산시 중산지구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약 2만 명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중산지구와 옥산2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옥산지하차도의 극심한 차량 정체가 지속되어 왔다.

지역 여성농업인 '편이장비' 지원 앞장

태안군, 1억 6천만 원 투입해 20~75세 대상 농작업대·고추 수확차 등 지원

태안군이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장비 지원에 앞장선다.

군은 올해 총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작업대와 고추 수확차 등 각종 편이(便宜)장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월 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 고령화 추세 속 농업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여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들의 농작업 지체가 개선될 경우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더불어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장비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75세 여성 농업인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태안군에 주소와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농가(세대)인 합산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미만이어야 하며 축산의 경우 소 100두, 돼지 3천두, 닭 3만수 미만의 조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여성 농업인 단독세대 및 경영주 ▲농작업량이 과다한 여성 농업인 ▲2023년 지원했으나 탈락한 여성 농업인 ▲최근 3년 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여성 농업인 순이다.

단, 타 산업 분야 사업장등록이 있거나 전업 직업이 있는 자, 최근 3년간 거짓 및 부정행위로 보조금을 수령한 자, 최근 3년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 사업 지원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장비는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다목적 파종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등이며, 승용차비(승용 예초기 등)나 8마력 이상 장비(경운기 등),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는 자동화·무인화 장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2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되며, 최종 선정 시 농가당 최대 50만 원 내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편이장비 구입 후 사업비 증빙서류·면허정복처센터에 제출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달 현재 태안군의 여성 농업인 수는 총 855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320대 가량의 편이장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사와 영농의 이종고를 겪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현기자



'상반기 음봉면 열린간담회' 열려

박시장 '음봉면,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 유치할 것'

이날 간담회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시의회 의장과 홍순철 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경귀 시장은 "음봉면은 아산시가 모시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는 곳으로, 탕정2지구 개발이 완성되면 고품격 주거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면서 "이런 큰 비전 외에 다양한 현안을 말씀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버스정류장 비가림 시설 및 스마트 승강장 설치 ▲동양리 등 클린하우스 설치 ▲음봉농협 앞 과속방지턱 설치 ▲쌍용 보건소 앞, 원남리 하나미이크론 앞 회전교차로 조성 ▲산동1리 마을회관 보수 ▲산동사거리 도로 확장 등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요양병원 유치 ▲국지도 70호 도로 파손 부분 개보수 ▲과곡골프장 조성사업 9홀→18홀 규모 확장 ▲매곡천 상류 유속 회복 보수 ▲이순신 장군 묘소 기반 문화콘텐츠 발굴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등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그 과정에서 음봉지역에 대한 시장 구상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탕정2지구에 포함된 음봉면 지역에 R&D집적지구를 만들 예정이다. 판교처럼 AI·빅데이터·메타버스 등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곳을 잇는 628번 도로는 현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고, 이 도로 북단 일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다"며, "농촌마을중합개발사업이 이뤄졌던 충무면이 올해 8월 시로 귀속되면, 온천치유센터를 설치해 아산온천을 치유온천으로 만들겠다"며 "온천의 치료 효과를 데이터로 검증하고, 치유욕조 등 각종 시험과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8기 들어 음봉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68건(2022년 하반기 25건, 2023년 상반기 22건, 2023년 하반기 21건) 중 ▲산동3리 미중택시 운행 요청 ▲버스노선 확대 조정 ▲백의중군길 고층 및 정비 건의 ▲경로당 난방비 차등 또는 추가지원 ▲피플산성, 물한산성 권역 정비 ▲연암산 정상 정자 설치 ▲연세유업 아산공장 악취 해소 등 19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산불 대응 태세 강화

청양군이 봄철 산불조심기간(02.01.~05.15.)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예방 및 산불 진화 체계를 점검하는 등 산불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군은 지난 2023년 봄철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 대형산불 발생기간(2.1.~5.15.)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보호를 실현한 바 있다.

올해도 산불 예방 홍보 및 계도, 신속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야심 차게 사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전문 예방반 45명 및 산불 유급 감시원 4명 선발, 교육, 임무부여 ▲산불 감시장비 점검(산불 영상 관제시스템 정비, 드론 점검 등) ▲산불홍보물 준비 ▲산불유관기관 및 비상 연락망 정비 ▲산불 진화 장비 정비(산불 진화차 및 개인 진화 장비) ▲산불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해 읍면별 영농부산물 소각 대신 파쇄기 운영을 추진하고 183개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청양=정상범기자



태안신협, 태안군에 성금 200만원 기탁 태안신협(이사장 문기석)이 태안군에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신협은 지난 22일 군청 군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문기석 이사장, 이동훈 전무, 김명환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성금 200만 원을 군에 기탁했다.

청년 후계농 선발·영농 정착 지원사업 추진

당진시, 매년 10명 이상 청년 후계농 선발 육성·신청자 모집

당진시는 농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의 발굴과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 후계농 선발 및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매년 10명 이상의 청년 후계농을

선발해 육성하고 있다.

신청 요건으로는 ▲나이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024년 기준) ▲독립 경영예정자 및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 경영 예정자 포함)의 영농경력 ▲당진시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농업인은 오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온라인 접수

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집 후에는 전문위원의 서면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청년 후계농은 당진시의 농업·농촌을 새롭게 이끌고 갈 영농후계자가 된다.

향후 청년 후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위해 당진시에서는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 육성정착자금 지원,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지원 사업, 멘토링 지원사업, 영농 정착 기술지원 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대설주의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돌입



23일, 박경귀 아산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대설주의보에 따라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당진시-대전세종충남혈액원 헌혈 권장 업무협약

2월부터 헌혈자에 당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지급



당진시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지난 22일, 당진시청에서 '헌혈 권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진시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은 지난 22일, 당진시청에서 '헌혈 권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당진시는 협약에 따라 당진사랑상품권 1만 원권 3,500장을 대전세종충남혈액원에 지급하고, 혈액원은 당진시에서 헌혈한 시민들에게 2월부터 당진사랑 지류상품권(지역화폐) 1만 원권을 지급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헌혈자 예우와 지원을 명시한 '당진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한편 당진시는 매월 1회 둘째 주 월요일(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당진시 헌혈의 날'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홀수 달엔 당진시장 주재장, 짝수 달엔 당진문예의전당 주재장에서 헌혈 버스를 통해 헌혈할 수 있으며, 헌혈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11시 30분, 오후 1시~4시이다.

당진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헌혈자 지원 강화를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자발적 헌혈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라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산 지역은 지난 22일 4시 3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박경귀 시장은 현재 기상상황 및 전방, 제설작업 관련 대처사항에 대해 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국교천교, 봉강교, 현충사C 초입 등 제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제설작업을 기해 달라"면서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영인산 등산에 대한 입산도 통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시장은 동 지역의 상가 앞 이면도로 등에 대한 눈 치우기가 이뤄지도록 안내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강조했다. 이어 "대설·한파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안부전화를 드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24시간 운영 중이다. 또 관계부서 및 읍면농 직원들도 제설작업 시행을 위해 비상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아산시 주간간부회의 열려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은 "아트밸리 아산'의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주말(20일) 경찰인재개발원 차인혁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아트밸리 아산 2024년 신년음악회'를 언급하며 미흡이 말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애호가들에게 차원이 다른 아산시의 문화예술

을 보여준 무대였다. 그동안 시민들의 예술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문화예술 감상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이젠 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예술을 선보여야 한다"며 "이를 문화복지국 업무라고만 여기면 안 된다. 기획경제국, 환경복지국, 자치행정국 등 모든 부서의 행사를 문화예술과 연계해 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 아산의 처음 방문한 사람도 많았다"면서

"이를 계기로 올해를 '아산 관광 활성화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 고품격 문화예술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관광인프라를 넓히고 모든 문화공연과 축제에 지역 관광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교통·관광 주요 거점에 포토존도 설치하고 아산예를 지원하는 이벤트로 지역에서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걸목 프로그램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시장은 또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와 관련 "아산형 교육모델을 담아 충남도와 함께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유형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를 지정하는 3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음면동열린간담회 남은 일정 준비 철저 ▲어르신 안부 묻는 우유배달 대상 확대 ▲만사행통 시민 반응 점검 ▲시 성장관리계획 내 탕정2지구 연접마을 9곳 계획 변경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부 재조정 등 ▲설맞이 직거래장터, 성남시 교류 추진 등을 지시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농업인실용교육

박경귀 아산시장은 24일 오전 9시 현대자동차문화관에서 열리는 '2024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장님 특강(벼, 인주)', 오전 10시 선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선장면 열린간담회', 오후 2시 영인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영인면 열린간담회', 오후 4시 상황실에서 열리는 '북부권 키즈엔터테인먼트 설계 공모전 전문가 회의'에 참석.

정기총회

오성환 당진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시민봉사 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당진지구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오전 11시, 2층 중회의실에서 '(사)당진시개발위원회 제36차 정기총회'에 참석.

군민과의 대화

가세로 태안군수는 24일 오후 1시 30분 태안문화원에서 열리는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

청양군 단수 등 비상상황 대비

청양군 맑은물사업소소장 오수환은 지난 23일,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의 예기치 못한 동파나 수질 악화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마시는 병물(2L*EA) 3,500개를 확보했다.

군은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주민 6,000여 가구에 마을상수도 32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45개소 등 총 177개소의 급수시설을 통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파로 인한 단수나 수질오염 발생 시 먹는 병물을 공급해 비상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 소장은 "예기치 못한 기후 환경 변화로 동파나 수질오염 등 먹는 물의 비상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병물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맑은물사업소는 마을상수도과 소규모 급수시설의 안전한 급수 환경 관리를 위해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정수장치 위탁관리, 물탱크 청소, 염소 소독기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연차별 광역상수도 공급망 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청양군 노인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지난 22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사업 시작에 앞서 참여자 상해보험 의무가입,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자리 사업 준비를 마쳤다.

또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년(75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약 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해(2,100명)보다 212명 증가한 2,312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3개 유형으로 총 35개 사업단으로 세분화해 청양군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청양군지회,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 청양군재가노인지원센터 총 4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계룡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67억 2천만 원 특례 보증 시행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3일 시청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응우 시장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김두중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약식은 계룡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5억 6천만 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출연금의 12배인 67억 2천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황은 2년 거주 후 일시상환하거나 2년 거주 후 3년 또는 5년 분상환으로 시는 이자 25%를 2년 간 지원할 예정이다.



계룡=김성구기자

대출을 받고자하는 소상공인은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되며, 관련 상담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 또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 및 계룡출장상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협약이 계룡시 소상공인 지원에 물론 잠재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례보증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다양한 대출 관련 상담 업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룡시청 3층 일자리센터에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다.

등정
농업인실용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24일 오후 1시 30분 은산면 체육관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30분 구룡면 행정복지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



김기웅 서천군수= 2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 국립생태원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 및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지역상생 협약식에 참석, 오전 11시 마서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마서면 여성농수산물대장이·취업식에 참석, 오후 2시 비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비인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

계룡시 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 최대 25만 원 지원 나서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160:주택 내 상수도 급수관 세척비용을 세대 당 최대 25만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도를 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계룡시는 지난 해 충남도 내 15개 시·군 중 최초로 '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예산에 상수도 옥내 급수관 세척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단독주택 기준 200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세척비용의 20%는 각 세대에서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등으로 면적 제한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주택, 오래된 주택, 소형 주택 등에 지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세척비용 신청은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로 계룡시 상하수도과(금암동 장안로 59-13)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상하수도과 관리팀 ☎042-840-2181~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 최초로 시행하는 상수도 급수관 세척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발생 총력 대응 앞다투

서천군은 22일 오후 10시 50분경 발화가 일어난 서천군 서천읍 소재 서천특화시장이 대형 화재로 일부 개소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 내 수산동과 일반동 사이에서 화재가 발생, 수산물동(121)과 일반동(90) 등 1층이 전소되고 2층 식당동(16)으로 번져 총 227개의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10분 내로 현장에 도착한 김기웅 군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며 즉각적인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해 실시간으로 재난 현장 상황을 공유했으며,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피해액 추산, 화재 원인, 후속 지원 등 화재 수습에 총력을 다뤘다.

군은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가용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한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상인들의 비탄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서천특화시장의 신속한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11시 대용 1단계, 오전 12시 대용 2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33대, 인원 3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이후 오전 3시에 대용 1단계로 다시 하향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여=김성구기자

부여군-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협력 성과 빛났다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 2억 1천만원 투입 · 11개 사업 · 148명 수료 · 40명 자격 취득



부여군(군수 박정현)과 대전세종충남지역혁신플랫폼(총괄:충남대학교)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부여군은 DSC 지역혁신플랫폼의 약 2억 1천만원을 지원받아 11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48명이 수료하고 4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일부 사업의 경우 수료자들이 비영리단체 등을 조직하여 충남인재육성재단의 '2023년 충남 커뮤니티 지원 장학사업'과 부여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부여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생태 공익활동 모인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동에 나선 계획이다.

특히, 강사가 적어 SW교육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어 120시간 학습 강의를 토대로 SW 학습코

디베이터를 양성하였으며, 배출된 강사진을 통해 258명의 학생에게 찾아가는 SW 미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선순환도 이뤘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자칫 위축될 수 있었던 군민 역량강화 사업들이 DSC 지역혁신플랫폼의 도움으로 잘 운영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인재 육성, 지역 정주율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부여군과 DSC 지역혁신플랫폼은 지난 2022년 지역협력체제 구축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공정 생태여행활동가 양성 ▲디지털 전환 시대 맞춤형 SW 미래 교육 강화, ▲지역 사회 연계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등 11개 사업을 추진했다.

논산시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 열려

2024년 설맞이, 논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과 함께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024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전에서는 논산시의 대표적 농·특산물인 설맞이(1.6kg), 돼지고기(1.5kg), 햇꽃김(30g), 프리미엄 전통주(우렁이쌀 주2병, 여우소주 1병) 등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30000포인트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상품들은 논산에서 직접 갖게 내놓은 고품질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논산시는 이번 달 24일 인

구 유동률이 높은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마켓배치 래빗 804에서 홍보전을 개최하여 잠재 기부자에게 논산시의 우수한 답례품을 직접 선보이기로 하였다.

본 행사는 1월 넷째 주와 다섯 번째 주 수요일, 금요일 총 4일에 걸쳐 진행되며, 경품추첨에 참여하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에 기부하시면 세액공제와 함께 우수한 논산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선기자

부여군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 4년 연속 선정

전액 국비 지원, 내달부터 작은 도서관 3개소 업무 시작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 지원사업'은 사립 작은 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운영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부여군은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순회사서를 채용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11평동

지 작은도서관, 벌빛지토작은도서관, 풀마음도서관)에 파견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 작은 도서관에 파견될 순회사서는 도서 선정·정리·대출 서비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작은 도서관 운영자와 봉사자 대상 실무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다년간의 순회사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작은도서관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 독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한편, 서천군은 장항국가산업단지 1단계 산업용지가 분양 완료될 목전에 두고 있으며, 2단계 산업용지에도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해 2025년 준공 전에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서천=김태선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논산시 방문

지역사회의 복합커뮤니티공간, 현장의 소리를 듣다

논산시(백성현 시장)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논산시를 방문하여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는 논산시가 지역의 문화·교육·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복합센터로 2024년 6월 개관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에서 시설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기동은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덧붙여,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장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은도시·농촌의 생활편의·문화·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시의 정주여건과 문화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를 차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합동 투자협약식(MOU)

국내 4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 체결

서천군, 화이트 바이오 기업 유치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서천군이 국내 생분해성 소재 4개 기업과 올해 첫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며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의 포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22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의 독자적 기술력을 지닌 국내 4개 기업과 함께 204억원 규모의 합동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체결한 4개 기업은 향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2만 6302㎡ 산업 용지에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103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협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수도권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망, 물류 접근 용이성, 저렴한 분양가 등이 꼽혔다.

투자를 결정한 A사는 특수한 미생물을 배양해 플라스틱 원료의 첨가제를 만드는 독자적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장항국가산업단에 50억원을 투자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B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장항국가산업단에 85억원을 투자해 생분해 플라스틱 재생펠렛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34명의 지역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C사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으로 50억원을 투자해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7명을 신규 채용한다.

D사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의 개별 인증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실증 및 제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장항국가산업단에 19억을 투자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화이트 바이오 기업 유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로 향후 바이오 분야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에 새롭게 터를 잡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김태선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논산시 방문

지역사회의 복합커뮤니티공간, 현장의 소리를 듣다

논산시(백성현 시장)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2일 논산시를 방문하여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는 논산시가 지역의 문화·교육·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하는 복합센터로 2024년 6월 개관 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현장에서 시설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고기동은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덧붙여, 논산시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장구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작은도시·농촌의 생활편의·문화·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시의 정주여건과 문화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를 차관님께서 관심을 갖고 살펴봐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항국가산업단지 합동 투자협약식(MOU)

국내 4개 기업과 합동 투자협약 체결

서천군, 화이트 바이오 기업 유치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서천군이 국내 생분해성 소재 4개 기업과 올해 첫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며 화이트 바이오산업 육성의 포문을 열었다.

군은 지난 22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야의 독자적 기술력을 지닌 국내 4개 기업과 함께 204억원 규모의 합동 투자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체결한 4개 기업은 향후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2만 6302㎡ 산업 용지에 신규 공장 건설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103여 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협약이 성사된 배경에는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수도권 접근성과 편리한 교통망, 물류 접근 용이성, 저렴한 분양가 등이 꼽혔다.

투자를 결정한 A사는 특수한 미생물을 배양해 플라스틱 원료의 첨가제를 만드는 독자적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장항국가산업단에 50억원을 투자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한다.

B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장항국가산업단에 85억원을 투자해 생분해 플라스틱 재생펠렛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34명의 지역 인력을 고용할 예정이다.

C사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미래 발전 가능성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기업으로 50억원을 투자해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27명을 신규 채용한다.

D사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제품의 개별 인증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 실증 및 제조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장항국가산업단에 19억을 투자하고 2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화이트 바이오 기업 유치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신성장 동력 확보의 계기로 향후 바이오 분야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인프라 확충, 규제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에 새롭게 터를 잡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천=김태선기자

통정

현장점검 실시



최원철 공주시장은 24일 오후 2시 금강신관공인 일원에서 제7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및 알밤박람회 행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시민 마라톤 초청행사



김동일 보령시장 = 보령시 대표단 방문 자격으로 1월 24일부터 28일 까지 일본 후지사와시에서 열리는 시민 마라톤 초청행사 참석.

부촌동 새해 시민과대화



이완섭 서산시장은 24일 오전 10시 서산문화원에서 열리는 부촌동 새해 시민과대화 참석, 오후 2시 서산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동문1동 새해시민과 대화 참석.

도시재생 거점시설 잇따라 준공

공주시, 책공방 북아트센터·마을어울림 플랫폼 등 올해 준공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올해 안에 잇따라 준공한다. 최원철 시장은 지난 22일, 중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원도심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을 올해 안에 대부분 마무리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먼저, 반죽동 옛 아카데미 극장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이 오는 3월 중 착공에 들어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애초 건물 전체를 철거한 뒤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민선 8기 들어 공주 근대문화의 상징적 건축물로 보존해야 한다는 지역사

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건물 전면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총사업비 76억원이 투입되는 마을어울림 플랫폼 조성사업은 연면적 995㎡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도시재생의 지속성과 지역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동네 공유상가를 비롯해 아카데미 극장의 상징성을 고려한 작은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지역 작가들의 활동공간이 될 기획'상설 전시장, 어울림 마당 등이 들어선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나태주 문화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은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나태주 플랫폼관 뒤편에 들어서는 나태주 문화창작 플랫폼은 총 69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950.86㎡,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1층은 수장고와 우수실, 지상 1층은 북라운지, 스튜디오, 상설라운지, 기획전시실, 2층은 사무실, 연구 및 교육실, 휴게 공간으로 구성된다. 계속해서 각종 책 만드는 기계 및 도구를 수집하고 직접 출판과 전시를 통해 책 제작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책공방 북아트센터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6억원이 투입돼 봉황초등학교 인근에 연면적 645.72㎡,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되는 책공방은 책 관련 전시관과 책공방, 교육실 등으로 조성된다. 최원철 시장은 "올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원도심 일대가 백제의 왕도였던 옛 번영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우리/동네

금산군 건축사협회

교육사랑 장학후원금 기탁

금산군 건축사협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22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금산교육사랑 장학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석곤 회장을 비롯해 박범인 금산군수, 조신영 금산군교육사랑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단체는 금산에서 건축설계와 공사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금산교육사랑 장학후원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김석곤 회장은 "장학기금 출연에 뜻을 모아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의 청소년들이 희망의 꿈을 키우는 미중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민간전문가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지원사업

보령시 2개 분야 최종선정

보령시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년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지원사업' 2개 분야에 최종선정돼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사업은 정부가 지자체의 공공건축·공간의 디자인 수준 향상과 전문성을 집약하기 위해 공공건축 사업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총괄·공공건축가의 인건비, 운영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공공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의 획일적인 디자인과 전문성을 보완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국비 4천만 원이 지원된다.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은 지역 전체의 도시경관 향상, 공공공간의 가치 회복,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며, 국비 1억 원이 지원된다.

시는 공공건축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지난 2023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건축과 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 14개 공공건축사업을 통합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식산업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 대규모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준비하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공건축 전략을 구상하고,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산시, 동절기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운영 실시

집단감염병 발생 사전 차단 및 상시 비상근무체계 유지

충남 서산시가 이번 동절기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2월 18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23일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호흡기 질환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증을 설 명절 연휴 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129개소를 지정해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노로바이러스를 비롯한 장관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이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보건소는 추운 겨울에도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먹기 ▲감염 증상 발생 시 공간 분리 및 주변 소독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유형으



로 다른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시민의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이라며 개인위생 수칙의 준수를 강조했다. 서산시 한은숙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어느 때보다 감염병 예방이 중요한 시기며 지역사회에 감염병 확산 방지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이번 동절기 비상방역 및 감시 대응 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감염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 입원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보령시,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속도 낸다

올해 382억 원 투입해 창동정수장 개량공사 등 11개 사업 추진



보령시가 올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 382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창동정수장 개량 공사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지방상수도 현대화(노후관망 정비) 사업 ▲미산배수지 설치 사업 등 11개 사업이다.

시는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지방상수도 소외계층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5억 6천여 만 원을 투입해 주산면 야룡리, 웅천읍 노천리 일원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설치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약6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992년 건립되어 노후 된 창동정수장 개량사업(13,000㎡)이 급년 5월 준공되면 약 2만7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수장 인프라가 구축된다.

아울러 원산도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상반기 준공되면 535세대의 급수 기구가 증가되고, 미산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급년 9월 준공예정인 714세대의 급수 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노후 상수관로 시범사업에 10억 원, 주산면 상수도 설치사업 5억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51개 마을에 14억 원 등을 투입해 늘어선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동일 시장은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으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김병수 건강증진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패 수상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사업 적극 추진

금산군보건소 김병수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인구보건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임보희 본부장이 보건소를 찾아 패를 전달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

증진과장으로 모자보건, 금연, 절주, 영양, 비만 등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암검진 및 일 반건강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

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탁월한 업무 수행을 보였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한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병수 과장은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서산시 농식품부 승인

충남 서산시가 지난 22일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시·군 단위 식량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2024-2028년) 79개 사업, 3122억 원을 투자해 쌀을 비롯한 밭 식량작물에 대한 생산·가공·유통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됐다.

시는 세부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서산시 농정과, 식량작물 생산 농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가 진행한 서면과 현장 평가, 발표의 3단계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승인을 통해 시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의 일환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배 건조저장시설지원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교육·컨설팅 지원, 시설·장비 지원) 등 식량산업분야 국비 사업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밖에도 ▲배 직접 재배면적 유지 ▲발작물 육성을 통한 수급 안정화 시책추진 ▲2026년 서산쌀 조공법인 출범 및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설립 운영 등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쌀 등 식량산업 전반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향후 5년간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지방자치 거점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해야”

최민호 시장, 2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참석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의회 세종 이전 계획과 병행해 지방자치 관련 기관을 기존 지방자치회관 주변으로 집적화해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최민호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8차 임시총회’에 참석, 지방자치 관련 현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징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홍 충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와 대구, 경기, 제주 등 3개 시도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우선 상징안건으로 ▲기준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의 발전단계에 맞춰 지방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 권한도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최민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와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 등 정부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세종과 강원, 제주,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 특별자치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론타워이자 지방자치 실현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할 ‘(가칭) 지방시대 종합타운’ 건립에 대해 정부와 시도별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가칭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중앙과 지방이 소통, 협력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을 공동정책화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장협의회, 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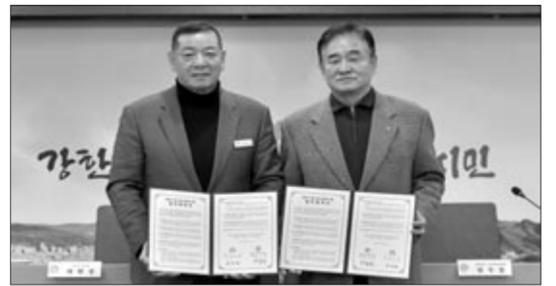
자치구의회장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협의체와 시도별 세종사무소 등 지방자치 관련기관의 집적화 된 공간이다.

시는 지방시대종합타운 조성해 이곳을 지방시대 정책 컨트론타워이자 지방자치를 실현 및 연구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시대종합타운에 입무와 컨벤션 기능을 위한 건축물 2개동을 건립해 중앙-지방 소통 업무는 물론, 대규모 행사와 회의, 전시, 공부 출장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방시대종합타운은 역대 정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시, 협의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정책화하고 입주기관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과 종합건강검진 협약 체결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 22일, 충청남도 공주의료원과 공주시청 직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고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종합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최원철시장과 임수흡 충청남도 공주의료원장을 비롯해 양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신성대, 지역주민을 위한 코메딕 공연 ‘성료’ 신성대학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VE)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진행 한 힐링시리즈 코메딕(코미디+메딕) 공연이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남대 위성활용연구센터-베트남 호치민산업대학 ‘LEO 인공위성시스템 글로벌 CDP’ 개최 한남대학교 위성활용연구센터(센터장은 성베)는 베트남 호치민산업대학과 LEO(저지궤도) 인공위성시스템 글로벌 캠퍼스디자인 프로젝트(CDP)를 공동 주관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로젝트 기간 중 호치민산업대학 정보기술학과와 학생 교육프로그램 추진과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세종충남대병원, 2024년도 상반기 고객행복위원회 개최 세종충남대학교병원(원장 권계철)은 1월 22일 오후 3시부터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상반기 고객행복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월 2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들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의 노고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보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언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단, 시화 도시개발 및 물관리현장 찾아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위해 방안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르비우주와 호로독시의 전후 재건과 연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도시재건 및 상수도 관련 기술협력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도시

개발 및 물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들 대표단은 1월 24일(수)로 예정된 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대표적인 물-에너지 연계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인 시화조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청정에너지와 연계한 도시개발 사례를 둘러봤다.

대표단은 이날 시화조력발전소 방문에

이러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한 대표적 도시개발 현장인 ‘송산그린시티’와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등대상’을 받은바 있는 ‘S’ 정수장인 ‘화성 스마트 정수장’을 방문하여 도시개발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관리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선도사업을 통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인 ‘워털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중 ‘카호우카댐 재건지원’과 ‘우안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을 담당하며,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청양터미널갤러리 ‘유현미·변선화 작가 초대전’ 개최

청양군군수 김문곤은 지난 19일, 청양터미널갤러리에서 초대작가 및 청양군미술협회 회원들과 함께 ‘유현미, 변선화 작가 초대전’ 개최식을 갖고 작가소개 및 작품 설명, 감상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2명의 작가가 참여한 합동 전시회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두 작가의 작품 15점씩, 총 30점의 서양화 작품들을 오는 2월 28일까지 청양터미널을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우체권 청양군 생활미술협회 대표는 “앞으로도 향토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청양군 예술 문화 저변 확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방한일 의원 “충남농어촌공사, 도내 기관과 협업해야”

“충남 이전 충남농어촌공사 사업 운용, 대전 아닌 충남 소재 기관과 이뤄져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국민의힘)은 23일 제3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의 5분발언을 통해, 대전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충남농어촌공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9개의 지역본부와 93개의 지사가 있는 거대한 기관”이라며 “농어촌공사의 다양한 농어

촌개발사업은 쇠퇴와 침체 속에 있던 우리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시대 공사·공단의 사업 운용도 이제 지역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며 대전에 있던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의 내포 이전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방 의원은 “하지만 아직도 대전에 위치한 기관과 사업을 운용하는 것은 충남지역본부로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충남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도내에 소

재한 기관과 협업해 주기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아산지사’ 신사옥 준공식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과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자체 및 유관 기관과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인사말을 밝힌 바 있다.

방 의원은 “충남농어촌공사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농어촌공사가 우리 도내에 소재한 기관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도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김정환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교통공사, 상반기 중 80% 조기 발주... 지역경제 견인

신속집행제도, 지역업체 지원제도 활용 상반기 내 169억 원 집중 발주



대전교통공사(사장 연구양)는 연간 발주계획 중 80%를 2024년도 상반기에 발주해 집행된 지역경제 견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사에서 예정된 총발주대상은 총 137건, 212억 원으로 이 중 80%인 120건, 169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고 상반기 최대집행을 위하여 입찰보증금 경감

(10%→5%), 대가 신속지급(5일→3일), 선급 지급 상한 확대 등 신속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업체 상생을 위해 발주단계부터 지역업체 확인제 도입, 중소기업 원자재 가격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업체·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구매, 상생결재 제도 운영 등 지역 업체 지원 활성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하여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독려하여 예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총 126억 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4억 원, 사회적기업 제품 6억 원 등을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였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된 도시철도 역사 안심시스템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수한 기술을 가진 지역업체의 판로확대에도 힘썼다.

연구양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마지막 호소

중기중앙회·중소기업단체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열고 공동 호소문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정운모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부회장단 등 10여명이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근 당정이 발표한 산재예방 지원확대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산업안전보건청의 핵심 기능과 업무를 수사·감독이 아닌 컨설팅·교육 등 산재예방 지원에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안전전문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시설·장비 교체 등 자체 예방노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중소기업의 존립과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여야가 다시 한번 협의를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송병배기자



서구 값진 나눔으로 김민년의 문을 열다 대전서구(구청장 서철모)는 '2023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포상금 일부(500만원)를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탁한 성금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서구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주민에 지원될 예정이다.



세종시시설공단, 세종 호수·중앙공원 운영 사무실 개소식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은 22일 금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세종 호수·중앙공원의 본격적인 관리를 대·내외에 알리는 사무실 개소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대전ICT산업협회, 충남대에 발전기금 기부 (사)대전ICT산업협회 양종식 협회장과 김진수 수석부회장은 23일 오후 3시, 이진숙 충남대 총장을 방문해 창업지원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예산군지부, 지부장이 취임식 (사)한국양곡가공협회 예산군지부는 10·11대 예산군 지부장에 대한 취임식을 23일 개최했다. 이 취임식에는 최재구 예산군수와 홍분표 국회의원, 이상우 군의장 및 관내도·군의원을 비롯해 심결선 한국양곡가공협회 중앙회장, 이영훈 충남도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10대 운영반 회장이 임명되고 11대 남기복 회장이 취임했다.



한국타이어 봉사단, 보훈가족 행복한 반찬나눔 봉사활동 실시 한국타이어 봉사단(회장 김홍렬)은 23일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만희)에서 추천받은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 10가구(대덕구)를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행복한 반찬나눔 이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중기중앙회 '2024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일 전주다메이호텔에서 호남지역 지자체 및 의회, 국회의원, 정부기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여한 '2024년 호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백석대·백석문화대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 주제로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제55회 콤캠프'

백석대학교(총장 장중현)·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는 1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교내 캠퍼스 일원에서 '나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제55회 백석콤캠프를 진행한다.

'백석콤캠프'는 올해로 28년차를 맞은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의 대표적인 행사로, 전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캠프다. 매년 여름, 겨울방학에 열린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인성캠프인 만큼 전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사회복지학부 ▲경향학부 ▲간호학과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 등의 전공 체험활동으로



참가자들의 '마음 속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갈 계획이다. 캠프 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떡볶이 어묵 등 겨울 먹거리도 준비했다. 본격적인 캠프가 진행되기 한 주 전, 방학인에도 캠퍼스는 재학생들로 북적였다. 백석콤캠프에서 각종 프로그램과 참가자들은

이끌어가는 '콤장'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번 캠프 봉사자인 '콤장'으로 참여한 사회복지학부 김백합 씨(21·여)는 "캠프에 참가한 아동·청소년들이 각각의 비전을 찾도록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대학 수업시간에 배운 다양

한 내용을 활용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뿌듯했다"고 말했다. 캠프를 운영하는 대학 인성개발본부 이계능 본부장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재학생들이 자신들보다 어린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격스럽다"며 "이렇게 귀한 프로그램이 28년째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캠프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겨울 캠프에는 약 500여 명의 아동·청소년이 참가하며, 1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는 초등학생, 25일(목)부터 27일(토)까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정복기자



트롯트 가수 김의영, 금산군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 기탁

트롯트 가수 김의영은 지난 22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받은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김의영 씨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깊었다"며 "이웃사랑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작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 "560만 충청인 통일 공감대 강화할 것"

23일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신년인사회 참석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김 지사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안상국 민주평통 충남부회장 직무대행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신년사, 환영사, 떡 킷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바른

안보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감사드립니다"라면서 "청년들이 올바른 통일의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주평통이 청년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보여주고 각종 교육과 체험을 통해 통일의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상반기 충청지역의 통일 종합플랫폼인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를 착공시켜 2025년까지 완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560만 충청인의 통일 공감대를 강화하고 아이들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통일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기자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 대전웰니스병원과 업무협약

영유아 발달검사지원 맞손... 발달 지연 조기 발견·체계적 지원 기대



대전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은숙)는 지역 내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대전웰니스병원(병원장 김철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에는 박은숙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효선 대전웰니스병원 소아재활센터 원장 등 양 기관 대표

및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 발달검사 사업 추진 협력 ▲영유아 발달 교육지원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은숙 대덕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료 발달검사, 심층 상담, 치료 연계 등 영유아들의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영유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대전대 AI딥러닝 기술기반 헬스케어 활용 교육 프로그램

휴먼터치웰니스헬스케어 및 로컬혁신크리에이터 분야 인재 양성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지방대학혁신사업팀에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교내 컴퓨터실에서 오프라인으로 'AI딥러

닝 기술기반 헬스케어 분야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AI딥러닝 기술기반 헬스케어 분야 활용 교육 프로그램은 본교 특성화 분야인 휴먼터치웰니스헬스케어, 로컬혁신크리에이터 인재 양성본부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 신청 방법

(<https://naver.me/FGFPYq5>)에 접속하여 내용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학생 모집은 선착순으로 1월 25일 17시까지이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교과목은 ▲AI헬스케어 데이터의 이해 ▲AI헬스케어 데이터 이해와

구현 ▲AI헬스케어와 로봇, AI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편성했다. 이어서 수료한 학생들은 다음달 5일부터 3일간 교육을 활용한 'AI 응용 캡스톤대회'를 운영하며, 특성화 융합교육과정 집중 캠프 참여 학생을 수료 시 집중캠프 참여 학생을 수료 시 집중캠프 참여 학생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대학 관계자는 "AI헬스케어 교육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판단하여 교과목을 내실있는 편성을 물론 학생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이룬다"고 말했다.

김영환기자

"어르신 430명의 '인생 2막' 시작"

대전시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소속 대전시노인복지관이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특별하게 사업 참여자 대표 박노식 어르신과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동 선서를 진행했다.

김인식 원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보니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느껴졌다"며 "어르신들의 열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겠다" 말했다.

23일 열린 사업 발대식은 ▲2023년 경과보고 ▲축사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우쿨렐레 축하공연이 이뤄졌다.

이영복기자



공주시 유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눔 활동 전개

취약계층 60가구에 물품 전달

공주시 유구읍(읍장 박종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성옥춘)는 지난 22일, 관내 장애인과 독거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 활동을 위해 장터곡수에서 소고기묵, 유일식품에서 두부, 유구 수제 나눔동아리 다섯손가락에서 수세미, 시장닭집에서 닭강정, 백송식당 및 중앙회관에서 밑반찬, 드림즈카페에서 간식꾸러미, 신화클럽에서 떡국떡을 후원했다.

협의체는 설 명절을 대비해 주위 관심이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 등 60

가구에 해당 물품을 전달했다. 성옥춘 민간위원장은 "설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성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지역 기업과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들 모두가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종석 유구읍장은 "올해 첫 사랑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유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올해도 취약계층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는 유구읍 행정복지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성범기자

시의 향기



고안나 시인의 '시냇물'

장백폭포

저렁저렁
천지 뒤흔드는소리
직립으로 일어 서서
풍경을 는다
시퍼렇게 질린 나무들
오금 저런 바람 오도 가도 못한채
부동자세다

귀 떨어놓은 하늘
마음 뒀은 물방이들
가침없이 쏟아놓는
훈계의 말씀
숨죽이고 듣고 있다
울음이 울음을 키운
소리로 청년
따끔하게 경(儆)을 치신다
백두대간 찰지게 꾸짖으신다

▶ 시작 노트
백두산에 있는 장대한 폭포, 비룡폭포라고도 부른다. 물살이 빨라서 먼 곳에서 보면 하늘을 오르는 다리를 연상하게 하여 '승사하'라고 부르며 개활지를 통해 흐르다 68m의 장대한 폭포를 이루어 90도 수직으로 암벽을 때리며 떨어진다. 36m 아래까지 곧게 쏟아져 물보라를 일으키며 송화강으로 유입되며 겨울에도 얼지 않고 계속 흘러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하니 마음은어느새 그 쪽을 향한다.

시의 향기



백성일 시인의 '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그런 하루를
가면을 쓰고 내면을 숨기고
산마루에
걸터앉아 온산의 노을을

볼태우고 있다
소년은 청년의 푸름을 그리워하고
청년은 어른의 권위를 부러워하고
많은 과오들이
긴 꿈속에서 꿈꾸며
이제 무엇이 비밀일까?
마음 가는대로
끝없는 생의 화두를
노을에 실을 것이다

▶ 시작 노트
해마다 신년이 되면 지난 세월을 반성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삶을 설계 한다. 화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마치 연극배우가 무대에서 희로애락을 연기 하듯이 노을을 벗삼아 삶을 노래하고 있으니, 이제 무엇이 비밀일까? 마음 가는대로 사는 것이다.

시의 향기



송기준 수필가의 '삶의 생각 뒤인길'

TV 화면과 밖

TV에어나온서는 누렇게 익은 들판 비추면서
추석 맞아 고향찾은 자녀 차량에
고향 정이 듬뿍 담긴다, 참이 마르고

소란스럽게 들쭉이던 청춘이 휘쓸고 간 뒤
논가에 나가 앉은 팔남매들 팔순이 훌쩍 지난아나
듬성듬성 서 있는 피코고

신을 벗을까 말까 망설이다 되돌아선다.

전답 한 번 안 둘러보고 외면 한채
아마도 아들 딸에 엄마일 하지 마 하겠지
그러면서 주는 건 엄마이런 거 안 취도돼
구서령대면서 정이러니 달석 받았을 터
TV에서어나온서는 정이 달달하다고 하는데
입안에 소태가 들었는지 쓰다

TV 화면과 밖 말만 달달하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적십자와 예산 발전 총력

대한 적십자사 봉사회 예산 지구 협의회(회장 조두건)는 균형 추수를 에서 23일 제14·15대 회장 이취임 식을 개최했다.
이 취임식에는 대한 적십자사 봉사 회 예산 지구 협의회 조두건 회장을 비롯해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 충남 협의회 이흥구 회장, 임종훈 전임회 장, 읍면 적십자 봉사회 임원과 최재 구 예산군수, 이상우 예산군의회장, 방 한일, 주진하 도의원 내외빈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취임식은 국제 적십자 운동 기 본 원칙 낭독으로 시작해 전임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 이임사 및 적십자 회기전수, 신임 회장 취임사, 내외빈

축사, 유공 회원 표창장 전달 및 신임 임원 선임증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임종훈 전임 회장은 "지난 4년간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조두 건 신임 회장께서 더 활기차고 멋진 봉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기대한 다"며 신임 회장에게 적십자 회기를 전수했다.
조두건 신임 회장은 "앞서 길을 다 저준 임종훈 전임 회장을 비롯한 선 배 회장 여러분의 노고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봉사하겠다"며 "타 의 모범이 되는 예산 지구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투철한 사명 감과 봉사 정신으로 적십자 봉사회와



예산 발전을 위해 애쓰신 임종훈 회 장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새롭게 봉사회를 이끌 조 두건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회원

여러분께서도 조두건 회장과 함께 예 산을 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 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박재화 기자

연서면 생활개선회, 사랑나눔 캠페인 쌀국수 기탁



세종시 연서면 생활개선회(회장 홍 서진)가 지난 22일 '사랑나눔 캠페 인'의 일환으로 연서면 지역사회보 장협의체(공동위원장 윤일형·김학 용)에 쌀국수 50박스를 기탁했다.
이날 물품을 전달할 연서면 생활개 선회는 여성농업인들로 구성된 농업 기술센터 소속 단체로 농업 발전에 힘쓰는 동시에 매년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홍서진 생활개선회 회장은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물품을 전달했다"며 "앞 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 겠다"고 말했다.
기탁받은 물품은 세종사회복지공 동모금회를 거쳐 관내 독거노인, 복 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 정이다.
윤일형 연서면장은 "매년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연서면 생활개설회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 등 어 려운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사설

비경제활동 청년 축소로 저성장 극복을

지금 우리나라에선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 평균연령은 높아지는 경제활동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전체 2천645만 개 일자리(2022년 기준)의 연령대별 점유 비중을 보면 이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 24%, 40대 23.8%, 30대 20%, 60세 이상 18.4%에 이어 20대가 13.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10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7천 명 늘어났는데,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천 명 줄어들었다고 나타났다.

활동 청년의 미래는 고립형·은둔형 외톨이 삶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류가 50만 명이 넘고, 사회비용도 연 10조 원을 넘을 거라고 말한다. 당 연한 얘기지만 비경제활동·실업 비중이 낮을수록, 취업 연령대가 젊을수록, 나라경제의 가 성비는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든다. 우 리는 정반대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위한 법 제화(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 노력은 지속됐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었 다.

취업률이 좁아지니 취업을 보류하거나 포기 하는 현상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태를 '실업' 또는 '취업유예'라고 한다. 청년층은 이상적인 직장을 잡기 위한 졸업유예, 대학원 같은 징검다리 과 정으로 취업유예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 다. 여기서 더 장기화되면 '비경제활동' 단계에 진입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상황이 청 년층에 일어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해진다. 안타깝게도 이 러한 비경제활동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출발부터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하는 비경제

이유는 자명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다. 기업이 그렇게 할 여 력이 있고, 그만큼 생산성 개선을 확신하거나 비용편익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간과한 채 정치적 규제 만 달랑 만들어 놓으니 늘 역효과만 발생한다. 이런 류의 규제가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지난 10년간 급격히 불어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단적인 예다. 비경제활동 청년을 노동 시장으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인 양질의 일자리 요, 이를 구현하는 건 오직 기업뿐이다.

이상기후 극복 위해 지금 당장 실천 나서야

지난해 여름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 대가 끝나고 지구열대화 시대가 되었다고 경고 했다. 지구온난화라는 익숙한 용어와 현상을 극복하기도 전에 지구열대화라는 충격적인 개 념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지구열 대화는 말 자체가 공포스럽다. 지구가 끓고 있 을 정도의 극한 폭염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 이 되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지금 당장 모든 국 가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 사 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유럽의 기후 변화 상황을 관측하는 코페르니쿠 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관측 결과에서 사실로 드러 났다.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1498°C로 기 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했던 한 해였던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은 물 론, 극심한 산불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겨울철 한파도 더욱 거세지면서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우리나라 소방진단단이 퀘벡주 산불 현장에 파견돼 30여 일간 맹활약하기도 했다. 한겨울 남극에서는 눈이 아니라 비가 내 리는 비정상적인 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는 환경의 재앙이 펼쳐 지고 있다.

이제는 산업화 이전보다 1.48°C가 높아진 것으로 인류의 공동 실천 과제인 1.5°C 제한 한계선 에 최근접했다. 게다가 지난해 절반 일수 정도 15°C를 넘어 목표 달성에 초비상 상황이다. 심 지어 11월에는 2°C가 더 높았던 날이 이틀이나 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이 정도였으 면 올해 15°C를 넘나들 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목표를 유지하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 된다. 이미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폭설, 가뭄,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 생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올해 평균 기온 상승을 어떻게 잡느냐 가 관건이다. 지금 이때로라면 지난해보다 낮 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국마다 설정한 목표치가 있지만 자국 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하여 두면서 실천은 매우 더딘 상황 이다. 이상기후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오면서 매 계절 극단적인 기후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상기후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일상 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더우면 에 어건을 더 세게 켜고 추우면 난방온도를 더 높 이는 사이 지구 환경은 더 악화되고 견딜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지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 며 여전히 남의 나라 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 의 전환이 시급하다.

대전상의, 산업재해예방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안전기술협회와 상반기 중 4개 과정 공동 개최 예정
제조업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평가 담당자 50인 대상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는 23일 오전 9시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조업 관리감독자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조업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대전상의와 한국안전기술협회가 공동으로 마련 한 이날 교육은 제조업 관리감독자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합교육과정으로, 본 교육과정 수료 시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8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강사로 나선 한국안전기술협회 박원석, 하호 연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로드맵 ▲산업안 전보건법 정책 방향 ▲관리감독자 임무와 역할 ▲표준안전 작업 및 지도요령 등에 대해 강의했 다.
한편, 대전상의는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된 만큼,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총 4회에 걸



처 관리감독자와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2~4회차 교육 일정 및 참가 신청 문의는 대전상 의 기업서비스팀(042-480-3043)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대전상의 회원사 임직원에게는 교육비 할인 서비스 혜택이 주어진다.

송병배 기자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like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and subscription rates.

대전투데이

16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대전투데이



CAFE 350



대전 서구 만년로65번길 23 1층 T: 042-482-3505